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판그랑한인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2010·5

통권167



인간과 환경의 **행복한 조화!**

SKYRON

SKYPET

SK chemicals

SK KERIS

SK Fiber Indonesia

180° 평면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드리는 퍼스트 클래스의
Kosmo Sleeper Seat, 이코노미 클래스의 모든 좌석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머큐리 어워드(Mercury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품격 기내식과 웨지우드(Wedgewood)에서 제작한 우아한 식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대한항공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Satisfaction

교민을 위한 Garuda Orient Holidays 패키지 모음

GOH와 한국 가기

여행테마	건강검진하고 예쁜 곳 찾아 다니기	건강검진하고 남도 일주	건강검진하고 제주도 옛길 따라 걷기	올레-올레, 제주 올레 갈래-갈래, 제주 갈래
가격	10인 US\$1,480 05인 US\$1,510 02인 US\$1,630	10인 US\$1,655 05인 US\$1,666 02인 US\$1,700	10인 US\$1,666 05인 US\$1,699 02인 US\$1,833	10인 US\$990 05인 US\$1000 02인 US\$1,100
상품내용	- 가루다 왕복항공권 - 명품종합검진 - 민속촌*에버랜드 - 남이섬*뽕띠프랑스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강화도*인천대교	- 가루다 왕복항공권 - 명품 종합검진 - 통영 한려수도 - 거제도*소매물도 - 진주성*마이산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강화도*인천대교	- 가루다 왕복항공권 - 제주 왕복항공권 - 명품 종합검진 - 제주도 2박3일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강화도*인천대교	- 가루다 왕복항공권 - 제주 왕복항공권 - 제주도 3박4일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강화도*인천대교
포함사항	자카르타-인천간 10일 유효 왕복티켓, 서울 외곽 특급호텔 2인1실 숙박, 교통편, 여행길잡이, 여행편의품			
불포함 사항	자카르타 공항세, 항공세, 서울체류 숙박			

GOH와 인도네시아 가기 1,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호텔	객실종류	요금(원)	
			2인1실	1인1실
★★★	IBIS Slipi IBIS Mangga Dua	Standard Superior	499,000	549,000
★★★★	Mercure Convention Centre Aston Marina	Superior 1BedRoom	529,000	599,000
	Crowne Plaza Gran Melia	Deluxe Deluxe	559,000	739,000
★★★★★	Mulia Senayan Four Seasons	Superior Splendor	599,000	779,000
★★★★★	Mandarin Oriental Jakarta	Superior	669,000	88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GOH와 인도네시아 가기 2, "인도네시아 교민 가족초청 발리 AIRTEL"

지역	호텔	요금(원)		
		평일 출발	일*월요일 출발	
짐바란	★★★	Best Western New Kuta Condotel	619,000	819,000
	★★★★★	Intercontinental Bali Resort	779,000	989,000
사누르	★★★★★	Sanur Beach Hotel	659,000	869,000
꾸따	★★★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Center	649,000	849,000
	★★★★★	Holiday Inn Resort Baruna Bali	739,000	949,000
누사두아	★★★★★	Aston Bali Resort & Spa	669,000	879,000
	★★★★★	Melia Bali Villas & Spa Resort	709,000	919,000
	★★★★★	Nikko Bali Resort & Spa	769,000	979,000
	★★★★★	The Westin Resort	759,000	969,000
우붓	★★★★★	Beji Ubud	699,000	909,000
	★★★★★	Alila Ubud	819,000	1,020,000
따나룻	★★★★★	Le Meridien Nirwana	719,000	929,000
스미낙	★★★★★	Sofitel Seminyak	739,000	949,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발리-인천 간 항공권, 발리 GOH 호텔 2박3일 숙박 및 발리공항-호텔간 차량			

GOH와 여행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 인도네시아 국내여행 및 호텔예약도 도와드립니다. 교민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격세지감 隔世之感

김문환/논설위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여행을 나가거나 해외취업을 하려면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신원조회, 반공교육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여권도 단수여권이 발급되었다. 당연히 해외거주자들은 현지공관에서 수시로 여권을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했으며 해외 체류자가 고국을 방문하려면 주재공관 영사과에서 매년 ‘출국 재입국(Exit Re-entry)’ 비자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리 라이(Hari Raya)처럼 긴 공휴일이나 연휴가 이어지는 기간에 갑작스레 출국을 해야 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굳게 닫힌 공관의 철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간장을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해 개개인의 활동이 통제되고 감시를 받는 이유는 남북한이 극도로 대립했던 냉전시대에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1970년대 말 필자가 근무하던 남부 깔리만판 주의 생산현장에는 100명 이상의 한국인 근무자와 4천여 명의 현지인 근로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다. 특히 한국인들은 거의 독신으로 근무하다 보니 저녁시간만 되면 조니 워커 같은 양주를 냉수 마시듯이 들이키며 취하곤 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인지라 술김에 서로 충돌하며 다툼도 벌이는 사이 취중진담을 통해 각자의 성격이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장비 정비사로 입사한 Y씨는 북과공작원 출신의 퇴역 육군 중사였으며, 경장비 정비사로 들어온 C씨는 서울의 모 대학을 나와 HHD부대장의 운전수로 있으면서 교도소를 돌며 북과공작원을 스카우트하는 임무를 거들던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또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C라는 정비사는 회사에서 보급품으로 지급하는 런닝셔츠의 상표가 왜 중공제냐고 총무과에 와 항의를 하며 어디에다 보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다.

당시 반자르마신(Banjarmasin) 같은 지방 시장통에 나가 내의를 사려면 인도네시아산은 찾기 힘들고 대신 중공제가 대부분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C 정비사는 처음부터 모 기관과 연결된 정보원이었던 셈이다.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자카르타 끌라빠 가딩 지역에 ‘칠보산’이라는 북한식당이 들어선지도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었고 최근에는 또 다른 북한식당이 시내 주택가 쪽에 개업하여 일부 한인들도 그곳을 이용한다고 들었다. 처음 칠보산이 개업했을 때 우리 교민들은 혼란스러워 했다. 그 동안 무장되어 있던 반공사상이 전파방해를 받으며 아이슬란드의 화산구름 같은 혼미 속으로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햇볕정책이니, 장성급회담이니 하여 본국에서의 해빙무드에 편승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자카르타의 우리 한인들은 어느새 칠보산을 다른 한국식당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평양냉면을 주문하였으며 간혹 그들의 달러벌이 수단으로 전시된 칠보산 풍경화 그림을 구매하는 이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천안함 사태는 이 모든 것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과연 평화통일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식당을 드나드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동족의식과 연계된 호기심의 발로였으며 언젠가는 우리는 통일될 것이라는 전제의식도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훗날 우리가 남북통일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금처럼 자카르타 시내에 한 두 개 존재하는 북한식당이 아니고 다르마왕사 쪽에 가면 ‘원산옥’, 세노빠띠 쪽에 가면 ‘함흥집’ 등 자카르타 어디를 가도 북한 음식 전문식당을 쉽게 만날 수 있어 팔도의 진미를 자유롭게 맛보며 ‘격세지감’을 얘기하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PT. DONG JUNG INDONESIA POLYBAG MANUFACTURER
ISO 9001 : 2000 ISO 14001 : 2004



30



32



34



36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웹사이트에서 과월호 한인뉴스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08 차 한잔 마시며 격세지감 隔世之感

10 한인사회 소식

- 땅그랑 한인회 창립
- 윤영선 관세청장, 동남아 FTA 설명회 개최
- 김창기 스마랑한글학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표창
- 인니 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 마련돼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대대적 조직 개편
- 부인회, 450여 회원 참여 속 유쾌한 시간 가져
- 인니여성부 장관 "한국음식 맛있고 담백해요"
- 롯데마트 본격적인 인니 시장 확대 나선다
- 교민 4인, 대한민국서예대전에 당당히 입상
- KOICA, 깔리만탄 지역에 녹색마을 조성 추진
- 월드옥타, 신임 식약청장 방문
- 한국의료봉사단, 인니 오지에서 현지인 사랑 심다
- JKS, 9개 대한 입시설명회 개최
- 천안함 희생자 46인 편히 잠드소서
- 바탐지역 소요 발생, 교민들 안전 주의
- 예총, 판소리 자선공연 수익금 사용처 공개
- 중부자바한인기업, 지방투자청과 기업환경개선 논의

42



29 릴레이 인터뷰

1. 김민수 변호사/PAK Law Firm 대표
2. 김육찬 Garuda Twinjaya 디렉터
3. 김종현 무궁화유통 대표이사
4. 이주한 Royal Sumatra 총괄이사



50

38 건강칼럼 흔하여 더욱 맛깔난 채소 Kang Kung

40 화제 자카르타한어린이합창단, 인니문화 알리러 한국간다.

42 시사포커스 22 5월은 잔인한 달

47 문화칼럼, 인니 한인사회의 문화 실재 1 저서를 통해 살펴다

50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말라리아 모기와 움막에서 허룻밤

52 평통광장

54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7 아버지의 마을 / 이상기 시인

58 김신의 알고싶은 컴퓨터 이야기 3 컴퓨터 해부하기

60 재인니문화연구회, 문화탐방 기행문 공모전

61 행복아이의비밀6

64 자카르타 학력 경시대회 시행 요강

65 와칭코리아 북한의 3대 후계세습과 인민생활의 피해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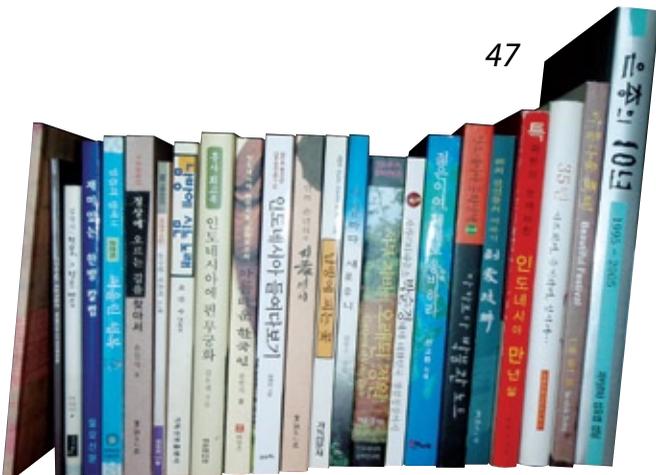
68 BOOKS

70 MOVIES

71 생활정보 가이드

76 5월 공지사항

47





“우리는 하나” 교민들 뜨거운 성원으로 땅그랑한인회 창립

5천여 교민들의 삶의 터전인 땅그랑 지역에 지역을 대표하는 재인도네시아 땅그랑한인회(이하 땅그랑 한인회)가 지난 4월 16일 창립, 땅그랑 지역 교민들과 각 지역 한인회, 대사관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임페리얼 골프장에서 성대한 창립기념식 및 교민의 밤을 개최했다.

창립식에 모인 교민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한 교민은 “상당수의 교민들이 살고 있는 땅그랑 지역에 교민대표기관인 한인회가 창립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며 “앞으로 교민들의 의견에 많이 귀 기울여주고 또한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땅그랑한인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이세호 회장은 한인회 창립 진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을 보며 한인회 앞날의 큰 희망을 보았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한인회의 구호 아래 교민들에 의해, 교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지 동거부부 미 결혼 가정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첫 사업으로 땅그랑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12번째 지방한인회 창립을 축하하며 땅그랑 지역 교민들 및 사업가들의 고충해결 창고로의 역할이



이세호 땅그랑한인회 초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필요 시 대사관 및 중앙한인회와 협력하는 등 교민사회 내에서 존경 받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승 회장은 교민들에게 한인회가 지역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대내·외적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 성원, 협조를 부탁했다.



김호영 대사도 몇 가지 제안-교민 권익보호 및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의 한인회, 현지인에게 사랑받는 한인사회,
인니 전체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한인회-을 통해
망그랑한인회가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
주길 바랬다.

이날 창립식에는 망그랑지역 사물놀이패인 '한가람'
과 초청가수인 '노고지리'의 축하 공연으로 창립일을
뜨겁게 빛냈다. 또한 교민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찬조한 많은
경품상품들을 나누며 모처럼 많은 수가 모인 망그랑의 밤은
즐거웠다.





윤영선 관세청장, 동남아 FTA 설명회 개최

한-인니 양국 관세청이 공동으로 양국 무역업체들과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4월 9일 자카르타 리즈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윤영선 관세청 청장은 FTA 관세효과가 큰 수출입 품목 제시, 원산지 결정사례 및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FTA 비즈니스 모델 등의 FTA 활용전략을 설명했다. 윤 청장은 “한-아세안 FTA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며 “설명회를 통해 양국교역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설명회에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현지 FTA 통관절차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윤영선 관세청장은 자카르타 KBN 공단을 방문하여 한인봉제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관상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현지기업과 한인기업들이 제기한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윤 청장은 세미나가 있기 전 오전에 토마스 수기아르파 인도네시아 관세청장과 무역부 차관을 만나 현지 우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고 또한 FTA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세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양국 관세청장간 회의의 정례화를 내용으로 하는 TOR(Terms of Reference)에 서명했다.



지난 8일엔 자카르타에 KBN지역에 위치한 봉제업체 등 20여 개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및 삼성전자, LG전자 현지법인을 방문하여 현지의 불합리한 통관관행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인니 정부와 협의해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한바 있다.

한편 한국관세청은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면담 뿐만 아니라, 4.27~30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33개국 참여)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 관세청장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할 것이며, 현재 한국정부가 년2회 운영 중인 아세안 세관공무원 초청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현지 세관공무원들이 한국 및 한국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윤영선 관세청장이 인도네시아 체류기간 중 LG(사진 위)와 삼성전자(사진 아래) 인도네시아 법인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등을 경청했다.



왼쪽부터 정덕경(교장 부인), 김창기 교장, 김호영 대사, 변철환 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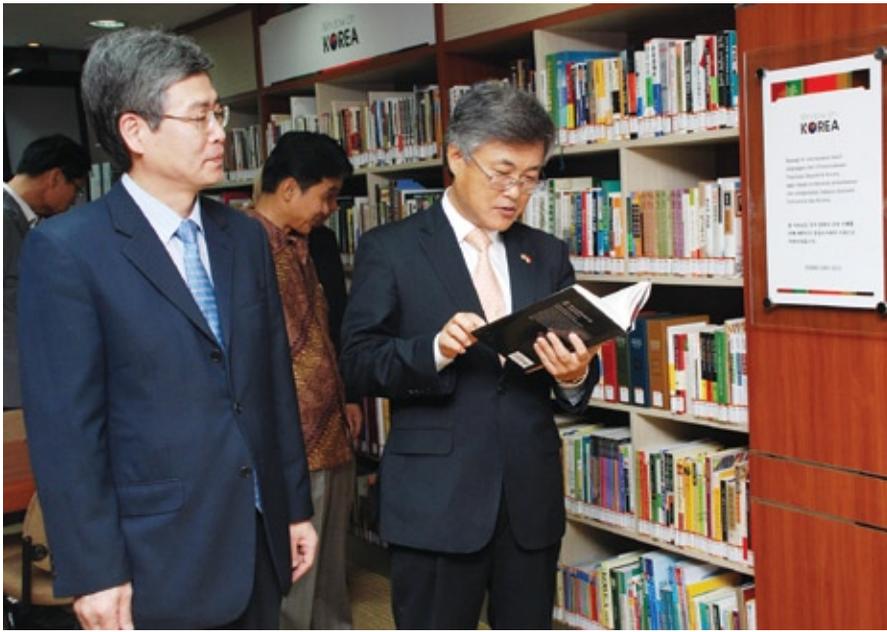
김창기 스마랑한글학교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표창

2005년 1월부터 스마랑 한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민 자녀들을 위한 한글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김창기 씨가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은 오늘(4월 7일) 오전 한국대사관에서 김호영대사가 대리 전달했다.

주인니한국대사관과 중부자바한인회의 후원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된 한글학교의 초대교장인 김창기씨는 열세분의 한글학교 교사들과 함께 2005년 한글학교 개교 이래 53명의 동포자녀(재적 71명)들의 한글교육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는데도 주력해 오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스마랑 소재의 사피아 와짜나 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등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 문화 보급과 소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스마랑한인교회 담임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05년 반다야체, 2006년 족자 및 지난해 남부수마트라 지역 등 구호의 손길을 필요한 인도네시아 재난재해 지역에 적극 동참해 이재민 구호활동을 하는 등 현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인니국립도서관에 마련된 한국자료실에서 김호영 대사가 책을 보고 있다. 왼쪽은 신용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인니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 마련돼

지난 4월 16일 인도네시아국립도서관(관장 릴릭 소엘리스티오와티) 분관 1층에 「한국자료실」인 “Window on KOREA”가 마련되었다.

한국자료실 개설은 2007년부터 한국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사업 중 열 번째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원한 한국관련 도서 및 DVD 등 2,600여책(점)의 자료와 서가, PC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자료실 운영을 돕기 위해 2014년까지 매년 200여 권 이상의 한국관련 자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용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과 릴릭 솔리스띠오와띠(Lilik Soelistyowati)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장 및 김호영 주인니 대사를 비롯하여, 한국관련 각계 인사 및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학과 및 한국어학과, 한국어센터나 교양과정인 국립 인도네시아대학을 포함한 10여 곳에서 운영되고있으며이번에설치되는인도네시아국립도서관 한국자료실이 양국간의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고 한국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자카르타에 위치한 모나스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인니국립도서관은 약 4만6천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은 물론 교민들도 도서관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를 대출받기 위해선 먼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원증 발급은 비치된 등록양식에 기입하고 신분증 및 자택전화번호가 꼭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한인회, 상공회의소 회장단들은 모임을 갖고 실질적인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눴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대대적 조직 개편

한인회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한인사회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되었던 ‘한인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로드맵 구성의 결과이다.

이번 한인회 조직은 외향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눈에 띈다. 특히 한인상공회의소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장 큰 변화다. 이민사회가 아닌 상공인 중심으로 이뤄진 이곳 한인사회에서 한인상공인의 중심체인 한인상공회의소의 제 역할을 위한 현실적인 조직개편이 논의되어왔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이전 부회장 3인 및 소수의 이사진에서 부회장단 14인 및 이사진의 대폭 강화를 통해 인니 한인사회 특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새롭게 위촉된 회장단 모임에서 승은호 회장은 “현재 한인회는 규모가 커졌고 안정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간 서로들 바빠 참여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새롭게 시작된 한인회인 만큼 직접 참여와 열정을 보여줘 우리와 타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는 한인회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전했다.

한인회 회장단

직책	성명	회사명
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수석부회장	신기엽	HANINDO EXPRESS
	조규철	DONG JUNG
부회장	김주철	STARCAMTEX
	박동희	TRI KARYA ALAM
	배도운	DOOSAN CIPTA BUSANA JAYA
	이지현	ZIMMOAH
	이진수	SUNG BO JAYA
	이호덕	VICTOR JAYA RAYA
	최대호	DONG SUH KOLIBINDO
	황의상	INWHA INDONESIA
	부회장 겸 감사	김경희
조용우		외환은행

상공회의소 회장단

직책	성명	회사명
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수석부회장	송창근	KMK GLOBAL SPORTS
부회장	곽삼섭	BOSAENG JAYA
	김성대	SAMICK INDONESIA
	김송정	UNICON INDO MESIN
	김우진	SAMINDO ELECTRONICS
	김은미	CEO SUITE
	배형석	NANTOY RESOURCES
	이경석	DONG SUNG
	이세호	DUMI GLOBAL
	이완주	PAN BROTHERS TBK
	이종후	SUNG WON INDONESIA
	장윤수	HANSARAM SAKTI
	최병우	ANEKA PANEL INDONESIA
	최창식	하나은행

제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장
승은호



자문위원회
지방한인회 | 부인회 | KOWIN | 예총 | 체육회

자문위원

이사회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수석부회장
신기엽 | 조규철




부회장단
(각 부회장은 한인회 분과위원회장으로 활동)

배도운	이호덕	이진수	최대호	김주철
				
김경희	조용우	박동희	이지현	황의상
				

사무국장
김재민

운영위원회

한인뉴스

간사

후원사
 코린도 | 키테크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포스코 | 두산 | 삼성 | LG | 롯데마트 | SK

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자문위원

부회장단

김성대	김승정	김우진	김은미	배형석	이경석	이종후
						
이세호	이완주	장윤수	최병우	최창식	곽삼섭	
						

사무총장
 김육찬

사무차장
 김종현
 이주한

간사
 남지화

업종별 협의회
 유통 | 관광 | 약기 | 금융 | 봉제 | IT | 모발 | 전자 | 에너지 | 상사 | 완구 | 신발 | 건설



부인회, 450여 회원 참여 속 유쾌한 시간 가져

- 교민사회의 올바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부인상 다짐

지난 4월 26일 자카르타 JW 메리웃 호텔에서 4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한국부인회 정기총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금번 정기총회는 노래한마당 및 노인대학 어머님들을 위한 효도잔치와 ‘행복전도사’로 유명한 송길원 교수 초청 강연 등으로 꾸며져 보다 뜻 깊은 날이 되었다.

홍미숙 부인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인회가 더욱 다양한 문화, 봉사활동을 통해 교민사회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바른 상을 만들어 나가고 또한 본국과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임을 더욱 강하게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며 4백여 명이 넘게 참여한 이날이 진정 유쾌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사 사모님인 주영수 고문은 “부인들의 품격이 곧 대한민국의 품격이다”며 아름다운 우리문화를 현지에 더욱 알려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인회 취미 활동반에서 유은영 씨의 지도아래 플롯을 배우고 있는 단원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행복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주제로 송길원 교수의 강연이 계속됐다. 송 교수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나고 살아간다”라는 참 명제를 자리한 부인들과 공유하며 칭찬, 웃음, 감사의 3가지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질 수 있고 행복은 너무도 쉽다고 전했다. 부인들은 ‘싱그러운 아침에는 칭찬의 비타민을, 나른한 오후에는 웃음의 엔도르핀을, 쉼이 필요한 저녁에는 감사의 디저트’를 외치며 행복전도사 송 교수의 즐거운 명 강연은 끝이 났다.

이어 바리톤 안영수 씨는 부모님의 그리움과 사랑을 그린 노래, ‘고향생각’과 ‘어머님의마음’을 뛰어난 가창으로 표현하며 자리한 노인대학 어머님들께 선사했다.

부인의 정기총회 중 천안암 침몰로 세상을 달리던 순국 장병들을 위한 애도의 시간을 자졌다.





이에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객석의 중앙을 차지했던 노인대학 어머님들은 무대에 올라 노인대학에서 연습한 신나는 가요 '여행을 떠나요'에 맞춰 흥겨운 춤사위로 초대해준 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입성한 부인 8명의 노래하마당 대회의 막이 올랐다. 참가자들은 본선 무대를 위해 갈고 닦은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 심사위원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만들었는가 하면, 화려한 무대 매너로 관중들의 큰 환호와 큰 박수를 이끌어 냈다. 가수 우연이의 '우연히' 곡을 부른 강미숙 씨는 이 박빙의 승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항공 티켓을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다.



정기 총회 중간 중간에는 약 100여 교민업체에서 후원해 준 협찬품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고 지난 달 백령도 앞 해상에서 천안함 침몰로 인해 산화한 46명의 순직 장병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시간을 갖기도 했다.

부인회는 1972년 창설 후, 주로 대사관 공사 부인들이 회장을 맡아 운영되어오다 82년에 처음으로 교민사이에서 회장이 선출되었다. 초대 김정순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홍미숙 16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 장학활동 및 문화활동 등을 전개하며 한인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23일 자카르타 소재 한국관에서 김치페스티벌이 열렸다. 좌로부터 심진 파트너스 대표, 홍미숙 한국부인회 회장, 배정옥 코윈 인니지 회장, 린다 아말리아 사리 여성부장관, 백지원 오송 공사 부인

인도네시아 여성부장관 “한국음식 맛있고 담백해요”

“한국음식은 맛있고 담백해요” 린다 아말리아 사리 인도네시아여성부장관은 23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인도네시아지회가 개최한 김치페스티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코윈 인도네시아지회(지회장 배정옥)는 이날 현지 여성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리 및 다문화가정 부인 등 50여명을 초청, 자카르타 중심에 위치한 한식당 한국관에서 우리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및 동치미 등 다양한 김치에 대해 소개하고 만드는 방법 시연은 물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잡채와 궁중떡볶이 등을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고 요리해 건강과 입맛은 물론 눈맛도 살린 품격있는 한식을 시연해 참석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30년 전부터 한식을 즐길만큼 지한파로 통하는 린다 장관은 “한식이

인도네시아사람 입맛에 맞다”며 “김치, 불고기, 갈비 등은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평했다. 여성부 한 고위급 관리자는 “한식은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채소와 육류를 잘 조합한 건강음식이라서 그런지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매우 좋다”고 한국음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민영방송국 메트로TV 등 현지 언론들도 참석, 한국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사제공: 데일리코리아>

김치페스티벌 에서 인도네시아 여성이 직접 김치 속을 넣고 있다





4월 19일 롯데마트 인니 본사에서 문영표 법인장(맨오른쪽)이 현지 및 교민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마트 상호변경을 공식화 했다.

롯데마트 본격적인 인니 시장 확대 나선다

- MAKRO 19개의 점포, LOTTE MART WHOLESALE로 상호 변경
- 소매 신규점 올해 4개 점, 향후 5년 내 30개점 오픈 추진



Pasar Rebo에 위치한 롯데마트 전경. 각 매장마다 약 500여 품목의 한국제품 외 1만6천여 품목이 진열되어 있다.

지난 2008년 네덜란드 계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체인인 'Makro'(19개점) 지분을 100% 인수해 국내 유통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 진출한 Lotte Mart Wholesale(이하 롯데마트)가 Makro 상호를 Lotte Mart WHOLESALE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시장 확대에 나섰다.

4월 19일 자카르타 7개점 상호변경을 시작으로 반둥 동부자와 및 발리 각1개점(4.26), 중부자와 3개점(5.3), 수마트라 3개점(5.11), 술라웨시 1개점 및 깔리만탄 2개점(5.21) 등 순차적으로 변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상호변경을 통해 기존의 Makro와는 차별화된 가격과 다양한 상품 그리고 친절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 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올해 내 소매 신규 4개점 오픈을 시작으로 5년 내 30개점의 오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밝혔다. 이로써 롯데마트는 도매 매장과 소매 매장을 동시에 운영, 인도네시아 Modern Market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롯데마트의 문영표 법인장은 롯데그룹은 "ASIA TOP 10 Global Group in 2018년"이라는 글로벌 진출 전략을 지난해 선포했고, 이 같은 전략에 따라 롯데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을 주요 거점으로 영업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롯데마트의 인니 진출은 현지 사업 확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고객들의 쇼핑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재미있고 친근한 가족들이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 다가서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근시일 내에 롯데백화점, 롯데리아, 롯데홈쇼핑, 롯데리아, 롯데월드, 롯데로지스틱 등 그룹 계열사들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2009년 두 차례의 대형 지진 발생시 긴급 구호물품과 구호자금을 지원하였고 특히 해당 지역에는 24채의 사랑의 집 짓기 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서예대전에 입상한 교민들. 좌로부터 여항 김종심, 우현 임채실, 자은 김영덕, 부연 이선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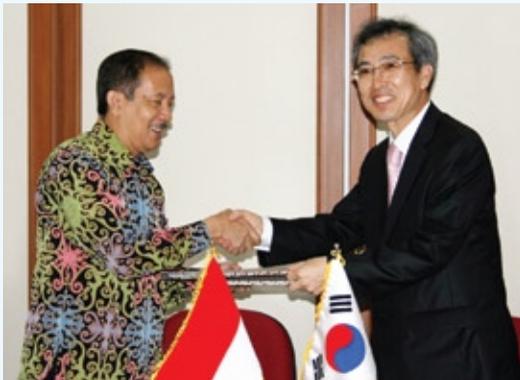
교민 4인, 대한민국서예대전에 당당히 입상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가 주관하는 제22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 4인의 교민(인니 한인서예협회 회원)이 당당히 입상을 했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2010년 5월 21일(금)부터 5월 27일(목)까지 7일간 전시되는 이 공모전은 국전, 미술대전, 서예대전으로 이어지는 정통 맥을 이은 공모전으로서, 국내 공모전 중 가장 많은 출품작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대회로 정평이 난 공모전이다.

해의 교민으로서 당당히 입상을 한 영예의 작가들은 자은 김영덕(한글 반포체와 조화체), 여항 김종심(문인화 중 난), 부연 이선우(한글 진흙림), 우현 임채실(한문 예서)씨 등이다. 이들은 평소 인재서당과 한국부인회의 취미활동반에서 인재 손인식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공모전출품과정기 회원전등을 병행하고 있는데, 소규모 그룹전과 특별 기념전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도선생 손인식 작가는 “공모전은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죠. 평소에 익힌 솜씨를 더욱 가다듬어 공모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경쟁을 하며 안목이 높은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받아본다는 것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입상이 되어도 발전을 하고 설사 낙선을 한다고 해도 배우는 것이 또한 많습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도 학습과정의 개인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 없지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회원들을 공모전에 출품하도록 권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환히 웃었다.

또한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호암 윤점용 작가(서예가, 전주대 교수)는, “타국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학습하고 알리는 것이 곧 애국인데, 국내 공모전에 좋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입상까지 하는 것은 국내의 작가들에게도 좋은 자극제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KOICA, 깔리만탄 지역에 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개발 통한 녹색마을 조성 추진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원조를 총괄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인도네시아 산림부와 향후 3년동안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연료개발 및 그린 빌리지 조성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4.16(금) 협의의사록



월드옥타, 신임 식약청장 방문

WORLD-OKTA 인니 지회 김우재 회장은 지난 3월 25일 신임 식약청장 Dra. Kustantinah, Apt.M.App.Sc 을 방문하여 신임 축하인사와 한국 수입식품을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에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흐름과 일부 업체 들의 기존업체 허가내용을 불법 도용하는 사례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선 한국에서 제출한 시험분석표를 현지에서 재차 분석제출 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방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이에 식약청장은 현실에 맞게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두드러지게 인도네시아에 진출 투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의 경제발전을위하고 한국투자자들이 용이하게 한국식품을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속문제를 정부가 실시중인 ONE POINT SERVICE 시스템을 발동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Record of Discussion)에 서명했다.

동 사업은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쉽 (2008-2012/2억불)의 일환으로 3년간 400만불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목재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가공시설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개발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ICA는 이러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펠릿공장 건축, 시범조림지(연료림) 조성 및 원자재 공급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속개발을 위한 협력센터 및 녹색마을(Green Village) 조성 등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큰 국가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7년부터 Indonesia Forest Climate Alliance(IFCA)를 조직하여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Indonesia)에 대한 방법론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프랑스, 호주 등과 공동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니 방문 시 양국간에 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용 조림사업지 200,000ha조성에 관한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녹색자원 및 기술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의료 봉사단, 인니 오지에서 현지인 사랑을 심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의학기술, 하지만 그런 의학기술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작은 질병임에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구하지 못해 큰 질병으로 키우는 경우가 인도네시아 오지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의 오지에서는 한국의 의료진과 국회의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약 20여명은 의료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의료활동이 벌어져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5050 미래포럼,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대한네트워킹병의원협회 등이 주최하고 코린도그룹, 한국제약협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후원한 2일간의 의료활동은 깔리만탄의 빵갈란분을 중심으로 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봉사자들의 진료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진료소 밖에는 트럭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미리 달려와 진찰을 기다리는 수백 여명의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짧은 의료봉사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수가 800명이 넘는 정도로 봉사자들의 시간과 인원은 턱없이 부족할 정도였다.

진찰은 받은 상당수의 현지인은 지금은 보기 힘든 후진국 형 질병군으로서 비위생 환경 및 영양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순구개열(언청이 증상) 및 흑 질병에 관한 것이었다.



의료봉사활동 소식을 듣고 모여든 주민들. 이들간의 의료활동 동안 8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JKS, 9개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재학생, 학부모 높은 관심 보여



지난 4월 13일(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대강당에서는 모국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카르타의 학생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가 JKS 대강당에서 열렸다. 특히,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9개 대학(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 학교 홍보 및 알찬 입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200여명의 재학생과 400여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져 자카르타의 입시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정보는 승리의 열쇠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뜻 깊은 행사였다.



연청이 수술 직후, 수술을 집도한 김병건 의사(왼쪽)와 전현의 국회의원

한연청이 환자는 수술하기엔 너무도 환경이 열악하고 수술 후 감염 등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수술해 주십시오”라며 수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더운 날씨 에어컨도 없는 수술실에서의 2시간에 걸친 대수술임에도 잘 견뎌내는 환자와 함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가 있었다. 환자의 부모는 의료진에 연신 고맙다는 말을 이었다.

한편 구강위생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개념은 거의 없어 보여 봉사단원들은 평상시 구강관리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현지 주민 대부분은 이가 아프면 방치시켜두고 이가 빠지면 틀니를 하는 등 성인 상당수의 구강상태는 좋지 못했다. 그들의 대부분은 평생 동안 단 한번의 치과검진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 실시한 교육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칫솔질 법을 떠라 하는 등 반응이 생각 외로 대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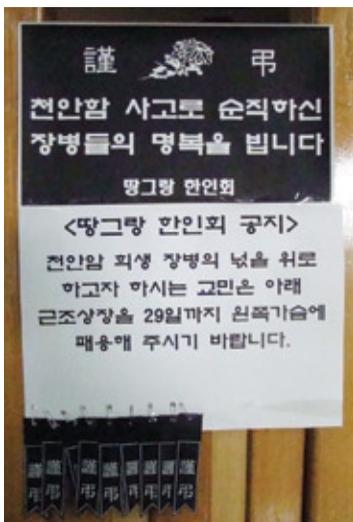
봉사단원으로 참여한 전현희 국회의원은 “몰려든 주민들 중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뇌신경과 혈관을 건드릴 위험이 있어 수술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어 너무도 안타까웠다”는 마음을 전하며 다음 기회에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줄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천안함 희생자 46인 편히 잠드소서 한인회 위로성금 모금 전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관련 희생자들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국내외에 분향소를 설치해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주인니한국대사관도 같은 기간 대사관내 1층 접견실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교민 추모 객을 맞이했다. 분향소를 찾은 교민들은 46인의 희생장병 영정 앞에 흰 국화를 놓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 교민은 “아직도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침몰 원인에 관해 희생자들과 그들 유가족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민관 모두가 합심해서 빠른 규명을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제인니한인회는 합동 분향 후 희생된 모든 분들께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유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자 사랑의 성금모금을 전개하기로 정하고 각 한인기업체와 지방 한인회등 단체 중심으로 공문을 보내 성금을 모금했다.



천안함 희생장병 국가조문기간 동안 46인 장병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교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인회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된 희생장병 유가족 및 금양호 희생자 중 인도네시아인 2명(누르카야, 유스프 하웨파) 유가족들에게 모금된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땅그랑한인회등지방한인회에서도 자발적인 근조상장 달기 운동을 펼치는 등 조금이나마 희생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했다.

한편 3월 26일에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은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최종 사망자 40명, 실종자 6명으로 공식 발표 됐다. 한편 실종자 수색과정 중 한주호 해군준위의 순직,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복귀하던 저인망 어선 금양호 침몰로 인해 탑승 선원 9명 중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바탐지역 소요 발생, 교민들 안전 주의

최근 인도네시아 바탐지역에서 외국인 직원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이에 격분한 현지 근로자들이 외국인 직원을 폭행하고 건물 및 차량을 방화하는 등 폭동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킬 경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바, 우리기업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일리코리아가 제공한 아래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인니 조선회사서 소요 사태...9명 부상

인도네시아의 한 조선회사 노동자들이 인도인 관리자가 인격 모독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한 노동자를 꾸짖는데 격분, 상사들을 폭행하고 불을 지르는 등 소요가 발생했다고 현지 뉴스포털 데탁콰이 23일 보도했다.

리아우군도주(州) 바탐 특별경제구역에 있는 조선회사인 'PT 드라이독스 월드 그라하'에서 22일 오전 8 시께 인도인 관리자 가네스가 작업 중 실수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구타하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 멍청해' 라고 말하자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나 인도인 관리자들을 폭행하고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번 소요로 인도인 관리자 5명이 폭행으로 중상을 입었고 인도네시아 근로자 4명이 불을 피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 이날 소요는 경찰 400명이 출동해 오후 2 시께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진정됐다.

밤방 부디 산토소 리아우군도주 지방경찰청 부청장은 안전문제를 고려해 인도인 34명 을 순찰보트에 태워 인근 바를랑 경찰서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밤방 부청장은 "사태 이후 바탐에서 외국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바탐의 치안이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두바이 투자자소유로 인도인 60명을 포함해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200명의 외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노동자 2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 조선소다.

<기사 제공: 데일리코리아>

예총, 판소리 자선공연 수익금 사용처 공개

예총은 지난 3월 9일부터 17일까지 주관했던 명창 박노웅 판소리 자선공연의 총 수익금 Rp.63,468,000과 \$400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자선 현장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예총은 총 수익금 중 박노웅 명창과 고수의 인니체류 및 행사진행비를 제외한 Rp,43,000,000이 메단수녀원, 밥퍼해피센터, 땅그랑 한센촌 등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다고 전하며 자선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후원사 및 교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금 기금 사용 내역

기금 수혜처	금 액
메단 수녀원	Rp, 10,000,000
밥퍼해피센터	Rp, 10,000,000
땅그랑 한센촌	Rp, 9,000,000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	Rp, 8,000,000
반등 다문화가정어린이 한글학교	Rp, 4,000,000
족자 한인 귀국	Rp, 2,000,000
계	Rp, 43,000,000



중부자바 한인기업, 지방투자청과 기업환경개선 논의

지난 4월 7일 중부자바한인회의 주최로 중부자바 소개 한인기업대표들과 지방투자청과의 모임을 가졌다. 한 한식당에서 갖게 된 이번 모임은 한인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Mr. Anung Sugihantono 스마랑 투자청장 등 관료 6인이 참석했다.

김재훈 중부자바 한인회장은 이번 모임이 Anung 투자청장과의 첫 대면인 만큼 어려운 이야기 보다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한인기업들의 투자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의 해법들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들은 Anung 청장의 5월 중순 한국의 관동대 초청 방문 이후로 미루고 5말 말경 한인기업들의 지방투자청 사무실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Anung청장은 한국방문시 하루 정도의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어 한국기업들 중 인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인기업 대표들은 현재 중부자바 살라띠가지역에 투자하여 공장 가동 중인 PT.Nesia(태평양물산)을 소개하며, 현재 서울의 본사가 재투자를 검토중인바 양자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중이다.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하며...

2010년 5월호부터 한인뉴스가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합니다. 우리 교민 모두가 인터뷰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인도네시아 인들도 포함됩니다.

5월, 6월호에 걸쳐 [릴레이 인터뷰]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교민 청년 사업가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번 청년 사업가 인터뷰를 기획하면서 주로 30대로 연령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교민 제1세대들의 자녀들로서 대부분 상당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해온 이들은 제1세대들이 지금껏 쌓아온 업적과 노하우들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물려받은 전형적인 교민 제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인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자질들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 나가는 동안 이들이 생각하는 범위는 이미 제1세대들의 어려웠던 시절 일궈 냈던 '기반'의 토대 위에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미래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중임을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진행형인 이들의 구상들이 구체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형적인 교민2세대 들로서 이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인도네시아를 찾게 된 다른 청년들과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교민1세대들을 바라보는 양자간의 시각은 사뭇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교민2세대들은 부모님(1세대), 자신(2세대)이라는 가족 테두리로서의 인식을 통해 대부분 기성세대와의 원활한 소통 및 심적 거리가 가까웠던 반면 그렇지 못한 다른 청년들은 기성세대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심적 거리 및 양자간의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인사회 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가교역할로서 교민2세대들의 세심한 자리매김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릴레이 인터뷰]는 다양한 삶을 구성하고 있는 교민사회의 이야기에 좀 더 구체적이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 주부, 사원, 문화인, 예술인, 종교인, 유학생, 교육자 등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는 교민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것이기에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민 편집위원>
haninnews123@gmail.com, 0818-916-566

인니 명문 로펌을 향해 나의 의지가 중요

김민수 변호사/PAK Law Firm 대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법률서비스가 너무도 부족하다고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니 투자 가능성을 보았을 때 법률분야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법률가의 길을 걷게 되었죠”

누구나 미래와 진로를 고민하며 젊은 시기를 보낸다. 김민수 변호사도 예외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리며 자신의 의지로 추진력 있게 밀어 부치는 점은 보통의 젊은이 이상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 출생이지만 첫 돌 때 인도네시아에 온 후 학창시절과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으니 인도네시아 토박이 제 1세대다. 그는 현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직장에 취직한 후 다시 법대에 입학해 졸업한 이력의 소유자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국인으로써 인니어와 문화를 제대로 익혀 지역전문가가 되라는 아버지의 권유가 그가 현지 대학을 진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 등 해외의 대학을 진학할 때 그는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려 인도네시아대학교(이하 UI) 인문대학운영의 BIPA(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해 사회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그 어렵다는 현지 대학교를 두 번이나 졸업했지만 한 때는 한국대학생들처럼 MT도 못하는 대학생활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역시 아버지다.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잠시 직장생활 후, 다시 UI 법대를 입학한 그는 졸업하기 직전인 2004년 현직 UI 법대 교수 두 분과 파트너를 맺고 'PAK Law Firm'을 설립해 현재 6명의 변호사들과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사내에서 그는 Managing Partner로써, 사실상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과 운영을 맡고 있는 실질적인 경영인이다.





아침 출근 후 그는 내부 미팅, 결재 등을 하고 고객들과 상담을 한다. 6년 차에 접어든 PAK 로펌은 이제 제법 이름을 알리며 힘차게 성장 중이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인도네시아 5대 로펌으로 키워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왕 법률가의 길을 걷게 됐으니 이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큰 의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꼽았다. 운영을 하다보면 목적에 따라 수반되는 경영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 맞지만, 수익이 목적이라면 적당한 규모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무시 할 수 없는 것이 소통이라고 말했다. 인니에 있는 한인 회사들 중에는 언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소통의 문제가 발생시키는 손실은 생각보다 회사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그는 앞서 말한 경영인의 의지와 목적에 맞는 과정, 효율적인 경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론론 적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상당히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그러한 성격 탓에 낯선 것을 대했을 때 두려워하기 전에 늘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며 실제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렇다고 그의 성격이 외향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내성적인 편이라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남 앞에 서는 것을 조금 꺼려한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다. 특히 많은 사람들과 마주대하고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성격이 큰 단점으로 작용했다. 한 번은 잘 아는 어르신들의 회사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다. 그분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려 애썼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마냥

머뭇거리기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분은 “물건을 팔러 왔으면 팔아봐라”면서 머뭇거리는데 그에게 크게 호통을 쳤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 삼아, 사업가로서 목적인 바를 이뤄내기 위한 많은 노하우를 깨우치게 됐고, 성격적인 단점도 서서히 고쳤다고 한다.

경영자로서 내성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 그 부분의 보완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많이 극복한 상태이지만, 그는 대인관계를 위해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대신 진솔한 마인드로 고객을 대하고, 상대와의 공통 관심사를 최대한 끌어내어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통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퇴근 후 약속이 없으면 보통 집에서 쉬면서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지만 그의 취미생활은 좀 독특하다. 그는 주말에 절친한 지인들과 야외로 출사를 나가거나, 외지로 여행을 하는 등 활동적인 취미 생활로 지쳐있는 몸을 풀고 재충전을 한다고 한다. 명문 로펌을 위해... 그 의지가 꼭 현실이 되어 만나기를 바라본다.

성명 김민수
출생년도/출생지 1976년/서울
회사 PAK Law Firm
업종 법률
직책 변호사/Managing Partner
전화 +62-21-797-6254
이메일 ms@paklawfirm.com
기혼/가족사항 미혼/부모, 형제 1
종교 기독교
혈액형 O형
흡연/주량 비흡연/소주 3잔
취미 사진, 오디오, 독서, 스쿠버다이빙
존경하는 인물 아버지

난 ‘제3문화 세대’ 삶의 터전 어디든 정착

김육찬 Garuda Twinjaya 디렉터

“불확실한 인도네시아 및 세계의 경제를 정확한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읽어 내 회사를 위한 시기 적절한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 그래서 기존세대가 이뤄 놓 업적의 기반 위에서 회사를 지속 성장시키는 것이 제가 맡은 회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김육찬 씨는 대학을 막 졸업한 95년부터 신발과 합판산업에 필요한 접착제와 PU 제품, 특수테이프를 생산하는 Garuda Twinjaya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재직 중이다. 그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바이어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최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엔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로

성명 김육찬
출생년도/출생지 1970년/말레이시아
회사 Garuda Twinjaya
업종 제조, IT, Design
직무/직책 디렉터
전화 +62-21-722-3056
이메일 yookchan@gtj.co.id
기혼/가족사항 기혼/부모, 1남 2녀
종교 기독교
혈액형 B형
주량 Social Drinker
좋아하는 운동 축구
좌우명 Promise Keeper가 되고 싶다.

인니 내수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향후 30년 간 인도네시아의 고속성장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IT 와 디자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행했다. 인도네시아에 가장 적합한 인사관리 시스템과 ERP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보급 중인 그는 이미 은행, 호텔, 정유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다국적 대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을 만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닐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미 인쇄업에 진출해 생산하기 시작한 디자인 분야는 근 시일 내에 상품디자인, 패키지디자인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지의 영향력 있는 광고에이전시로 키울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자국 브랜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 10대 디자인 강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자국의 수출 진흥을 꽤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육찬 씨는 회사 성패의 70~80%를 경영에서 찾았고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영자의 노하우 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 창업주와 달리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장경험의 노하우에 대한 그의 능력은 그가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점에서 그는 몸소 체험하고 무에서 유를 이끌어낸 1세대들이 노력의 산물들을 수월하게 이어받은 교민 2세대 경영자들은 분명 상당부분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교민 2세 젊은 CEO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고 반문한다. 따라서 그는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심은 매우 컸다.

그는 인터뷰 내내 너무도 솔직했고 좀더 정확히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념적인 용어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와의 대화는 약간의 긴장을 요했다. 편의상 그는 스스로를 교민 2세라 표현하지만 그의 삶은 상식적인 선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복잡 미묘하다. 그는 ‘난 그저 한국인의 피를 받은 한국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일 뿐 그의 고향이라 생각해 본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더구나 대학시절을 제외하곤 살아본적 없는 한국 역시 고향이라는 개념 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그에게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그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현재 삶의 터전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부모의 나라와 체류 국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반면 사회의 최소 준거집단인 가정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언뜻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비춰지지만 그는 자신을 제3문화 아이들(The Third Culture Kids) 세대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사업을 일굴 수 있고 삶의 터전이 되는 세계 어느 곳이든 그의 정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Promise Keeper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Promise Keeper는 체면과 위선을 버리고 가정과 사회를 일으키고 절대자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최고의 아버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실생활에서 시간을 적절히 할애해 가는 방법으로 가족과의 약속, 사업상의 약속, 절대자 및 종교생활에서의 사소한 약속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에게 ‘신뢰’란 그를 존재케 하는 중심 핵이 된다. 신뢰로 지탱되는 The Third Culture Kids로서 삶을 사는 그를 들여다 보면서 우리는 지금껏 간과해 왔던 더 넓고 객관적인 타 영역의 삶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불가능’은 변명 10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할 것

김종헌 무궁화유통 대표이사

“고객만족경영, 사람존중경영, 새로운 가치창조경영 이라는 3대 비전으로 향후 인니 10위권 유통기업으로 약진해 진정한 고객중심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500여명의 고객을 모시고 무궁화유통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종헌 씨의 약속이다.

무궁화유통은 한국식품 전문유통회사로서 전문 도·소매업 회사로서 인니 전역에 한국 식품을 유통하고 있고 현재 자체 매장만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부모님이 어렵게 일궈 제1의 한인유통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를 그는 고객에게 보다 편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늑한 매장 인테리어 및 인터넷 쇼핑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젊음의 패기로 향후 총 10개의 지점을 더 확보하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인도네시아의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일반시장에도 한국식품을 공급하는 등 인니 10대 유통회사의 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은 자의 변명이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는 가능한 직접 체험하고 솔선수범 하여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또한 그는 성격만큼이나 매사에

활동적이고 이러한 그의 성격은 각종 운동 모임이나 단체의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고 있다. 또한 리더십이 강해 단체나 모임의 최고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교감을 갖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동료와 지인들과 할애한다. 그래서 그의 주량은 소주 세 병이다.

정보화 시대인 지금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사회에 적응하고 또한 한 발 앞서 뛰어가기 위해 그는 공부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파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발길을 돌려 미국의 Irvine 대학에서 MBA를 수학한 그는 현재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인도네시아지회 총무 외 인니차세대협의회 고문,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한국수입업협회 지사장, 재인니한인청년회 부회장, 인니수디르만로터리클럽 회원 등 수많은 단체에 가입해 인도네시아와 세계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엔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무역인상을 받았다. 큰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웠다고 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더 많이 들여와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인도네시아 동포 2세대의 만형 뻘이 된다. 그래서 비슷한 연배의 친구 및 후배들과 현지의 정치, 경제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자녀교육문제, 한인사회 및 청년들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제3세대 부터는 인니 정계에 한인들의 진출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매우 현실적인 의견도 오고 간다. 그는 한인사회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청년들을 주목해

성명 김종헌

출생년도/출생지 1971년/일본

회사 PT. Koin Bumi

업종 유통, 무역

직책 대표이사

전화 +62-21-722-2214

이메일 kimjhnick@gmail.com

기혼/가족사항 기혼/부모, 아내, 아들 3

종교 천주교

혈액형 A형

흡연/주량 흡연/소주 3병

취미 골프, 야구, 영화감상

존경하는 인물 부모님

좌우명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은 자의 변명이다

주길 바랬다. 특히 청년(특히 교민 2세대)들에 대한 원로들(1세대)의 생각은 아직 ‘어린나이’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라며 부족하지만 그들이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 해주기를 바랬다. 그는 30대와 40대 초반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활발한 활동력으로 한인사회 미래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젊은층에 대한 원로들의 배려와 젊은층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말했다.

그에게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깊고 단단히 뿌리를 내려 살아가야 할 곳이며, 가까운 미래엔 선배로서 건강한 3세, 4세 후배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그들을 이끌어 내야 할 제2의 고향이라고...

‘미래 사업 개척’이 내 의무 그리고 매사에 감사한다.

이주한 Royal Sumatra 총괄이사

“저는 전형적인 교민 2세대에 속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경쟁력 있는 사업분야의 개척이 우리 세대의 사회적 의무입니다”

PT. MJR 대표이사인 이주한 씨는 의료기기 및 종합상사인 PT. MJR 외에도 부동산 개발 사업체인 ‘로얄 수마트라’와 ‘로얄 앙코르 월드’의 이사 직책으로 있다. 그는 올해 36세다. 이주한 씨는 세 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인도네시아에 정착,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입학 전까지 줄 곳 현지생활을 해온 전형적인 교민 2세대. 그는 잠깐의 한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한국 벤처회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당시부터 근무하다 회사를 인수해 2006년부터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는 또한 현재 수마트라 매단에 골프장을 포함한 주택단지과 학교, 공공시설, 아파트, 상업지구, 오락시설 등 260헥타르에 이르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 ‘로얄 수마트라’와 골프장, 호텔, 빌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유일하게 코엑스를 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소재한 ‘로얄 앙코르 월드’사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약관의 나이 30대 중반, 대기업이 아닌 개인업체로서 종합상사업 이외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책임감과 추진력이 있다는 평을 듣는 그 이지만 쏟아지는 업무에 항상 바쁜 일상은 스트레스도 친구처럼 그와 동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일에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향력을 가진 사업가로서 각국의 무역업/



성명 이주한

출생년도/출생지 1975년/서울

회사 Royal Sumatra

업종 무역/부동산 개발

직책 대표이사/이사

전화 +62-21-7919-4411

이메일 joochanlee@yahoo.com

기혼/가족사항 기혼/부모, 자녀 3

종교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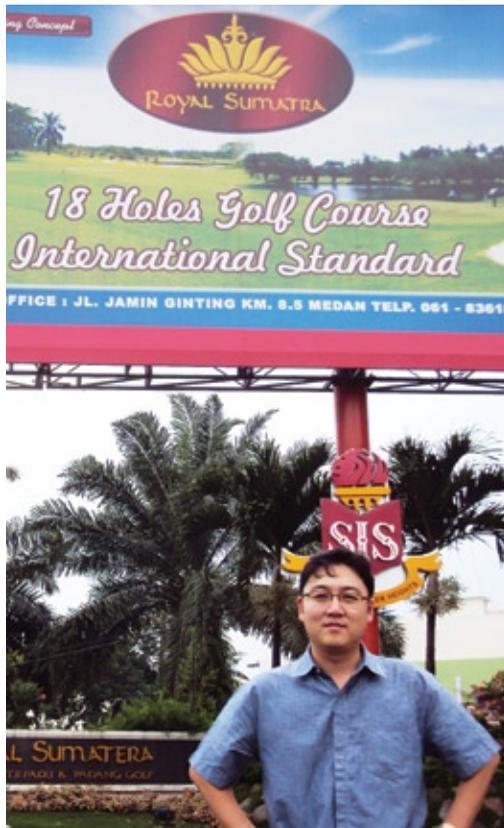
혈액형 O형

좋아하는 운동 골프, 테니스, 축구

존경하는 인물 양가 아버님, 이견희

부동산 개발을 원하는 후발 업체들을 이끌어주는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 그는 직원들에게만큼은 항상 따뜻한 상사로서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배려의 끈을 놓지 않는다. 직원들의 경조사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자주 직접 대면을 통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로서의 연대감을 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곧 회사의 좋은 실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그는 그의 내성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으로 경영인으로서의 자신을 바꿔나간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경영인으로 부르는 것에 일단 그의 부족함을 시인한다. 하지만 그는 “모든 분야에서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열정과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경영인의 자세이지 않나?”라며 반문한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한 단계 한 단계 훈련하는 과정이라 여기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주목하며 그 어려움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가끔 업무 중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를 발견할 때면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극복이 곧 발전’이라는 마인드컨트롤로 이겨낸다.

그는 전형적인 교민2세로서의 한인사회 내 그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교민1세대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지금의 한인사회를 물려받은 2세대들이 1세대들의 유산을 기초로 더욱 발전시켜 영향력 있는 한인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거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에서 향후 수십 년 이상을 내다 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개척해 사업화 해 내는 것이야말로 그가 속한 2세대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도 새로운 사업 발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그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한국위원회 무역/부동산개발 분과장으로 또한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차장으로서 개인사업 영역 외 인도네시아와 한인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 어린 나이 타국에서의 생활은 그와 그의 친 동생을 더욱 가까운 형제로 때로는 친구로서의 동질감을 싹트게 했다. 그는 사랑하는 친 동생과 함께 형제 사업가로서 세계무대에서 힘껏 원대한 꿈을 펼치는 그날을 그리고 있다.



흔하여 더욱 맛깔난 채소

Kang Kung

Kang Kung.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 음식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인도네시아에 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먹어봤을 음식입니다. 한국음식을 안다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말하길, 깡궁은 ‘인도네시아의 김치’라며 बे시시 웃으며 얘기 합니다. 가격도 아주 싸서 현지 주민들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어디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네 가정부들은 지나가는 리어커 채소상에게 매일 한단씩 산 후 볶아 먹기도 하는 아주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가까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음식에 있어 많이 응용되며, 친숙하며, 밥 한그릇 뚝 비울수 있는 맛깔난 반찬으로 이용되는 채소입니다.

살짝 기름에 볶아 마늘, 고추등을 넣어 먹으면 우리 입맛에도 아주 잘 맞는 깡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깡궁의 학명은 *Impoeta aquatica* 입니다. 깡궁의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 쌍자엽식물강 합관화아강 매꽃과 고구마속입니다. 매꽃과의 식물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나팔꽃이 있으며,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이는 견우자(흑축), 매꽃과 식물인 새삼의 씨앗인 토사자 등이 있습니다. 견우자는 나팔꽃의 씨로 체내의 수분을

배성하는 작용이 있어 사하(瀉下)작용과 이뇨작용이 강하고 기를 잘 내려 몸이 부을 때, 만성신우신염, 간경화 등으로 복수가 찰 때 사용합니다. 또한 해수, 천식에 유효하며 완고한 변비, 기생충제거에도 사용합니다.

토사자는 신장을 보하고 정력을 복돋아주며 간의 기능을 좋게 하면서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의 통증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키를 크게 하는 도움이 됩니다.

깡궁의 원산지는 열대아시아로 중국남부에서 동남아시아에 걸친 넓은 지역에 야생종이 있고 재배도 이루어지는 여름 채소이며, 고온을 좋아하며 토양수분이 많고 습한 곳에서 생장합니다. 영어로는 water spinach, water convolvulus, swap cabbage, 중국어로는 쑹시차이, 말레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깡궁, 한국명으로 공심채 (空心菜)라고 불리웁니다. 줄기 속안이 비었다고 해서 공심채라고 하는군요.

깡궁의 한의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性)은 한(寒), 평(平)하고, 미(味)는 고(苦) 감(甘)하며, 귀경으로는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이 됩니다.

깡궁은 성질과 효능이 시금치와도 비슷한데 시금치를

한방적으로 봤을때 동의보감에는
파능(菠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시금치는 만성
변비와 고혈압과 치질의
치료에 쓰이며 췌장의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변통이 없고
치질인 사람은 시금치를
상식하는 것이 좋으며 항문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자연히 통변이
잘된다고 합니다. 본초강목에는 시금치는 혈액을
통하고 가슴이 막힌 것을 통한다. 기를 내리고
속을 고르게 한다고 하며, 식료본초에는 시금치는
오장을 이롭게 하고 자오가위의 열을 통한다. 주독을
푼다고 합니다



깡궁의 생김새는 한국의 미나리 같기도 하고 시금치
같기도 합니다. 시금치보다는 질긴 것이 미나리와 더
유사한 것 같습니다. 길이는 25~30cm정도 이며 짙은
녹색을 띄고 있습니다. 줄기가 길며 줄기 아래로 잎들이
붙어 있으며, 시장에서 파는 깡궁을 한 단 사면 굉장하
게 많아 보이지만 막상 다듬고 요리를 하면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줄기를 만지면 힘이 느껴지고 자르면 가운데가
비어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심채라 부르며,
속이 비어있어 수생환경에서 떼있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줄기 안에 벌레가 살 수도 있기에 꼭 익혀먹는 것이
좋습니다.

깡궁은 요리법도 간단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먼저 후라이팬에 고추와 마늘을 갈아 넣고 약간 볶은 후
깡궁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넣고 다시 볶습니다. 여기에
자기 입맛에 맞게 마른 새우나 조개, 씨푸드를 넣어 먹기도
하고 메추리 알도 넣어 먹으면 맛있습디다. 볶아 먹는데
자체의 향 또한 일품이며 익기 시작하면 얼른 꺼내어
먹으며,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때 먹으면 식욕이 되살아
나기도 합니다.

깡궁의 성분을 살펴보면 열량은 30 kcal로써 100g
당 단백질 2.7 g, 칼슘 89 mg, 철 2.5mg, 비타민 A 2.9mg
비타민 C 65mg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깡궁에는 섬유질도 많아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줌으로
장을 청소해 주고 배변을 촉진시켜 주므로 불순물 제거와
변비를 도와줍니다.

또한 깡궁 속의 칼륨 함량은 5.5mg,
철분은 2.5mg로 이는 당근(0.7mg)이나
고추(0.9mg), 피망(0.5mg) 중의 약
3배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A·B·C·D·E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액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철분과 엽산, 비타민 B2 등이
함유돼 빈혈 예방과 치료하는데 더없이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에 필요량이 증가하는 비타민B,
C 그리고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골격과 뼈 형성에 필요한 칼슘, 철분 및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어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깡궁은 시금치보다 인
(45mg/100g당), 칼슘(89mg) 함량이 더 많았으며 특히
칼슘은 시금치의 1.5배, 비타민A는 1.4배, 섬유질은 3.5
배나 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식중독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 음식을 함께 먹으면 자연적으로 해독작용을
하게 된다고 현지인들은 말합니다. 또한 심신을 튼튼하게
해주는 강장제나 이완제로 사용한다니 매우 유익한 채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나 늘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
안정을 취하도록 섭취케 하기도 하며,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 채소를 많이 먹으면 잠이 많이 오고 졸립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해져내려 오는 말로 Asam Urat(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깡궁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근
나온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통풍
예방에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깡궁은 값싸고 구하기 쉬우며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채소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봄이라는
만물생장의 시기에 파릇파릇한 새싹나물, 봄나물에 밥을
먹을 때인데 봄나물 대신 깡궁으로 대신 먹어도 나무랄 때
없는.. 인도네시아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기 채소가
아닐까 합니다.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한인어린이합창단, 인니 문화 알리러 한국간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솔로에서 열린 <솔로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어린이 합창단원들 모습.

인니 노동자 위한 위문공연 통해서도 양국간 따뜻한 사랑 실천할 터

자카르타 한인어린이합창단(이하 어린이합창단)이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알리러 한국 공연을 추진한다. 이번 공연은 경기도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이주민 센터, 그리고 안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통해 그들과 하나되는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을 전해줄 계획이다.

어린이합창단 단원 43명 전원과 학부모 포함 약 80명 동행하게 되는 이번 한국 행은 그 규모에 있어서 만큼은 문화사절단이라 불려도 틀리지 않을 만큼 대단한 규모다. 7월 9일 자카르타를 출발해 9박 10일간의 한국 일정을 소화하게 될 어린이합창단은 1여 년간 준비해온 인도네시아의 전통 민요와 춤 그리고 악기연주를 통해 아직은 낯선 인니 문화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안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강당에서 펼쳐질 위문공연은 양국간의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Nicholas T. Damme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도 참석해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낼 예정이다.

2005년 합창단 창단 이후 단장을 맡고 있는 소프라노 김영희 씨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금번 한국 공연은 '한국에 인니 문화 알리기'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문공연'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그리워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소박한 마음이 이번 문화 여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말한다.

어린이합창단 단장 김영희씨



김영희 씨는 특히 지난해 '솔로국제음악페스티벌' 참가를 계기로 느낀 진한 감동이 특히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니 근로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어린이합창단을 포함해 호주,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 등 총 8개국이 참가한 솔로국제음악페스티벌의 공연에서 어린이 합창단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노래 'Bengawan Solo'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렸다. 인도네시아의 '아리랑'이라고 불리며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곡의 반주가 시작되자마자 솔로 주민들의 탄성이 이어졌고 그들과 한 목소리로 따뜻하고 짜릿한 감동적인 하나됨의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곡이 끝나자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는 인도네시아 관객들의 환호를 들으며 한없이 기뻐던 추억은 합창단원들의 기억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노래할 때 너무도 행복해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보며 좀 더 뜻 깊은 공연을 바라는 합창단원들의 마음은 같았다고 한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따뜻했던 그 감동을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 대한 한국인의 깊은 정을 보여주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서 단원 모두 자비를 들여 이 공연을 계획한 것이다.

이러한 동기에서 인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합창단원들의 모습은 매우 적극적이다. 김영희 씨는 한국인이 스스로 제3세계 문화인 인도네시아의 전통문화를 배워 국내에 알렸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단원들의 의욕이 상당하다고 한다. 사만댄스와 발리댄스 연습에 몰두하다 보면 무릎이 깨지곤 하거나 손과 허리가 아파 울기도 하는 단원들도 있지만 그들의 의욕 앞에선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린이 합창단은 위문공연 외에 부산어린이 남성초등학교 방문 교류 공연(15일), 남이섬 야외특설무대에서의 공연(17일)을 통해 발리댄스, 사만댄스, 앙끌롱 연주, 인도네시아 민요 등 인도네시아의 전통의 정수를 선보이게 되며 특히 남이섬 공연에서는 대교 TV 어린이합창단과 'I have a dream' '아리랑' 'Bengawan Solo' 등 각 나라의 대표 곡들을 함께 부르며 노래로 하나됨을 보여줄 계획이다.

〈취재: 김영민 편집위원〉



어린이합창단이 인도네시아 전통춤인 사만댄스(위)와 발리댄스(아래)를 공연하고 있다.

자카르타 한인어린이합창단은?

현재 초등학교 3~6학년까지 43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합창단은 매주 토요일이면 한데 모여 한국 동요, 사물놀이 등 한국 문화 및 다양한 예술체험과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어린이로 자라나고 있다. 합창단은 또한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발리댄스와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만댄스, 그리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중인 전통악기 앙끌롱 및 전통민요를 배우고 있다.

김영희 단장
(0815-181-3102 / yhjakarta@hotmail.com)



5월은 잔인한 달

글 김문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이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엘리엇(T.S.Eliot)의 '황무지(The Waste Land)'라는 시에 나오는 첫 구절이다. 영국인들은 이와 같이 4월의 봄을 잔인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 특히 '5월 사태'의 도화선이 된 네 명의 트리삭띠(Trisakti) 대학생 희생자의 유족들을 비롯하여 강간, 방화, 폭력의 제물이 된 화교사회는 아마 이 5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가슴에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매년 5월만 되면 인도네시아 언론매체들은 자료실을 다시 뒤져 1998년의 '5월 사태'를 재조명하기에 바쁘고 시민단체들도 부산하게 움직인다. 이들의 희생은 수하르또의 32년 장기집권을 종식시켜 민주화로 향하는 이정표를 만들어 낸 값진 수확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그 비극의 진상은 아직껏 시원하게 규명되지 못한 채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5월 사태 당시 부통령이었으며 5월 21일 수하르또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하비비(B.J.Habibie)가 2006년 9월 21일 '결정적인 순간들(Detik-detik yang Menentukan)'이라는 제목의 자신의 비망록을 발간하자 이 책자에 등장하는 5월 사태의 주역들인 위란또(Wiranto) 당시

국군사령관과 빠라보워(Prabowo) 당시 전략사령관은 즉각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하비비가 증언하는 한가지 사실을 놓고 양자간에 상이한 주장이 계속되자 유력한 지상파 방송인 메트로 TV는 하비비를 포함한 두 당사자들을 인기 토크쇼 프로그램인 '킥 앤디(Kick Andy Show)'에 순차적으로 출연시켜 각자의 변을 국민들에게 내보낸 바 있다.

2009년 4월 총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 신통 뻘자히판(Sintong Pandjaitan)이라는 귀에 익은 장군의 자서전이 발간되었다. 이 자서전은 길거리의 행상들까지도 들고 다니면서 쉽게 판매할 정도로 단기간에 베스트 셀러 반열에 올랐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통 뻘자히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그는 특수전의 대부이며 정보정치의 상징이었던 베니 무르다니 장군이 걸어온 전력과 가장 유사하게 걸어온 현대사의 출연자들 중 한 명이며 미래의 육군참모총장직을 예약해 놓았던 촉망 받는 장군이였다. 그는 1965년 9.30 공산 쿠데타 당시 쿠데타군이 점령한 국영 라디오방송국(RRI)을 재탈환하는 최선봉 소대장이었고 동 락모르, 이리안 자야, 술라웨시 등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특공부대 장교로서 전공을 쌓아 왔다. 1981년 3월 가루다 항공기가 이슬람 극단분자에 의해 태국 돈 무앙(Don Muang) 공항으로 납치되자 구출작전 특공대장으로 파견되어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을 개시하여 특공대원 한 명과 조종사 한 명이 희생된 외에 48명의 승객들과 승무원들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여 대 테러전의 영웅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특전사령관을 거쳐 발리에서 동 락모르까지의 도서지역을 관장하는 우다야나 지역사령관(Pangdam Udayana)의 임기를 거의 마치고 국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하기 직전인 1992년 11월에 터진 딜리(Dili)시 외각 지역인 산타 쿠루즈(Santa Cruz) 공동묘지 집단학살사건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격한 비난과 압력을 받게 되자 그는 군 지휘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회생양이 되고 만다. 군복을 벗은 후에도 무시할 수 없는 그의 혁혁한 과거 전과와 공적에 힘입어 그는 초급장교시절부터 그의 직속상관이며 당시 국군사령관으로 입신한 화이잘 탄중(Faisal Tanjung) 장군의 자문역을 거쳐 하비비가 과학기술부장관, 부통령,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줄곧 그의 군사고문으로 다시 활약하게 된다. 1998년 발발한 5월 사태 당시엔 하비비 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며 역사의 현장을 참관하였던 위치에 서기도 하였다. 5월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뿌라보위와 위란또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입장이기에 그의 자서전이 이같이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이 하비비 전 대통령의 비망록, 메트로 TV방송의 킥 앤드 토크쇼에 출연했던 하비비, 위란또, 뿌라보위의 진술과 신통 뻘자히판의 자서전을 종합하여 5월 사태 직후의 과도기에 불거진 쟁점들을 이들간의 대화 내용을 통해 다시 들여다 본다.

사회자 하비비씨, 수하르토 대통령은 왜 아직까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시 시중에는 그 이유로 세 가지의 소문이 유포되었는데 첫째, 하비비가 수하르토 자녀들의 이권을 수용하지 않았고, 둘째, 당시 수하르토가 비상내각을 조각할 당시 14명의 입각 후보자들이 하비비와 먼저 상의한 후 입각하기를 거부하였고, 셋째, 수하르토가 하야할 당시 실제로는 부통령인 당신과 함께 동반 퇴진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당신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포되고 있다. 이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비비 내가 수하르토의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소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유는 나는 4번째기 동안 수하르토를 직접 보필하였지만 수하르토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시 나는 부통령이기 전에 집권당(Golkar)의 조정자 역할을 수임받은 터라 기난자르(Ginandjar)를 필두로 한 14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이미 입각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후에 나에게 통보를 한 데 불과하지 마치 나와 야합하여 입각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통령의 책무는

대통령이 유고가 생길 시 이를 대행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동반퇴진을 하게 되면 국정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동반퇴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귀하의 입장에서 수하르토를 꼭 만나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비비 나의 부친이 1950년대 마까사르의 자택에서 기도 시간에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집 앞에 주둔하던 수하르토 중령이 직접 달려와 채 감지 못한 부친의 눈을 감겨 주었으며 모든 장례절차를 부대원들을 시켜 진행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후 수하르토와 동향인 나의 모친이 돌아 갔을 때에도 수하르토 장군이 모든 뒷 처리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 모두의 은인이었기에 모친이 별세하면서 절대 수하르토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15살 위지만 나의 부친이나 다름 없는 수하르토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 귀하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며칠 후 뿌라보위 중장이 찾아와 자신이 전략사령관직에서 해임된 데 대해 깊은 상처를 받고 수미뜨로가와 수하르토가를 모욕했다는 투의 감정을 표현하였다는데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비비 내가 뿌라보위의 직위를 해직한 것은 그의 장인(수하르토)의 요청을 받고 단행한 인사였다고 말하였고 모든 군사 통솔권은 위란또 장군에게 위임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뿌라보위가 하는 말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대통령입니까? 너무 천진난만한 대통령 아닙니까?” 이러기에 “자네 일이나 똑바로 하게”라고 응수하였지요.



사회자 하비비의 비망록에 의하면 당신이 대통령인 하비비에게 ‘천진난만한 대통령이란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다는데...

뿌라보위 하비비에게 할 말이 있어 중재인을 넣어 면회를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실망하던 참이었죠.

사회자 당신이 요청한 면회를 하비비가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실에 대해 배신감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뿌라보위 몹시 실망했죠. 그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1998년 5월 18일 대학생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점거하여 수하르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3일 후인 5월 21일 수하르토는 하야하여 32년간의 철권정치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가족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본인의 의도였습니다.

사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만나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계속 만남을 시도했다. 강압이 아닌가?

쁘라보워 계속 시도하면 하비비가 응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사회자 만났을 경우, 당신은 하비비에게 어떤 말을 할 참이었나? 비망록 내용을 정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구를 할 참이었나?

쁘라보워 “비망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언사를 쓰지 않았다. 만약 했다면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할 참이었다.

사회자 불경스런 언사를 당신이 직접했다는데...

쁘라보워 녹음이 되어있는가?

사회자 Asiaweek지에 따르면 하비비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켜 국군사령관(Pangab)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데 사실인가?

쁘라보워 하비비는 수시로 그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내가 존경하는 상관이 좋아하는 그 부하에게 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사회자 그렇다면 하비비가 진정 당신의 능력만을 인정해서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 보는가?

쁘라보워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아마 내가 순진했는지 모르겠다.

사회자 결국 국군사령관(Pangab)으로 임명된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위란또 장군이였다. 당신은 이에 대해 좌절하고 화를 냈는가?

쁘라보워 그렇지 않다. 군대의 위계질서상, 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항상 순종한다. 이 결정에 대해 실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사회자 하비비 비망록에 의하면 하비비가 전략사령관(Kostrad)인 당신을 교체하도록 위란또에게 지시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당신의 부친인 수미뜨로 박사의 자서전에 의하면 당신의 해직을 요구한 사람은 다름아닌 수하르토였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사실인가?

쁘라보워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비비를 만났을 때 본인의 교체계획에 대해 아는 바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나의 장인인 수하르토의 요청이었다고 토로하였다.

사회자 충격을 받았는가?

쁘라보워 그렇다. 큰 충격을 받았다.



사회자 하비비가 대통령에 취임한 날 뿌라보워의 군대가 대통령궁과 하비비의 사저를 포위하고 있다는 보고를 당신이 하비비에게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위란또 나는 하비비 대통령에게 쿠데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자 그러나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 심히 염려하고 있음이 하비비 비망록에 드러나 있다. 무슨 근거로 쿠데타 가능성을 배제하였는가?

위란또 인도네시아 역사상,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례가 없다. 군 지휘체계상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국군사령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당시의 국군사령관은 바로 나였다.

사회자 그렇다면 하비비는 왜 만났는가?

위란또 당시 국가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국군 최고 책임자로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만나 치안상태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사회자 비망록에 보면 전직 특전사령관이며 하비비의 측근인 신통 뻘자히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혹시



신통이 하비비에게 그런 보고를 하였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위란또 당시 신통은 하비비의 개인 보좌관 자격이었으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사회자 5월 사태 당시 국가치안질서회복 전권을 위란또 국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1998년 대통령령 제16호가 당신에게 부여되었는데 당신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왜 행사하지 않았는가?

위란또 대통령령 제16호를 받은 건 사실이다. 국가정책 결정권과 내각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통솔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그 명령서의 골자였다. 정정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었기에 끝까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사회자 대통령이 부여한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령불복종이 아닌가?

위란또 그 명령을 받는 날, 수바기오 대장(당시 육참총장), 엔드리아르또 소장(당시 대통령 경호실장)도 함께 배석하였다. 수하르또는 “이건 내가 부여하는 명령일세. 필요 시, 그 권한을 행사하여도 좋고, 행사하지 않아도 상관없소. 사용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소.” 라고 설명하였다.

사회자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당신은 그 직후 대통령직에 올랐을 텐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당신을 겁쟁이라고 표현하는 부류도 있다.

위란또 그런가?

사회자 당신의 자서전에 보면, 5월 사태 직전 재야운동가들이

수하르또의 뒤를 이어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하비비가 국군사령관 겸 국방부장관인 위란또 장군을 집무실에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가운데가 신통 뿐자하면 대통령 고문.

납치 살해된 사건에 대해 뿌라보위가 상관인 당신의 허가 없이 저질렀다고 당신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는 데 사실인가?

위란또 맞다. 3월5일자 매스컴은 납치 당사자로 뿌라보위가 부대장으로 있는 특전사(Kopassus)를 지목하였고 전임 국군사령관인 화이잘 판중(Faizal Tanjung) 장군에게 전화상으로 물어 보았으나 자신은 이 명령을 내린 일이 없다고 하였다.

사회자 5월 사태의 배후로 당신을 거명하는 부류도 있다. 그 근거로 폭동 당시 당신이 군 수뇌부를 대동하고 동부자와 말랑(Malang)에서 거행된 국군 행사에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그 행사가 그렇게 중요했나?

위란또 물론 중요한 행사였다. 신속대응 타격대 인수인계 행사였다.

사회자 불바다가 된 자카르타를 등질 정도로 중요한 행사였나?

위란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국군 지휘부를 모두 대동한 것은 아니다. 자카르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하마미 나따(Hamami Nata)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장, 자카르타 지역사령관 샤프리 삼수딘(Sjafrie Syamsudin) 소장은 물론 국군사령부의 관리참모부장(KASUM)인 화끄를 라지(Fachrul Razi) 중장은 자카르타에서 상황을 지키고 있었다.

사회자 당신이 대학생 시위대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후문을 개방하고 국회를 지키던 경비병력을 감원하도록 명령한 것은 결과적으로 수하르또의 하야를 재촉한 것이 아닌가?

위란또 몇번 말씀드렸듯이 현장 작전권한은 지역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3월 14일 밤, 관련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자카르타 지역사령관인 샤프리 소장에게 “더 지원 받을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다. 추가 병력을 요청하기에 그날 밤 당장 동부자와에 주둔하고 있던 전략사령부 병력과 해병대 병력을 차출하여 배속시켰다.

이와 같이 하비비의 비망목을 근거로 토크쇼 무대로

이들 3인을 불러 간접적인 3자 대면을 실시하였지만 범조문 해석하듯이 투명한 결론은 얻지 못하였고, 단지 그 심중에 의해 독자들 스스로가 그 개연성은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5월 사태 폭풍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던 뿌라보워는 수하르토의 차녀인 띠떡과 결혼한 이후 대통령의 사위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43세에 준장으로 승진하여 소속부대인 특전사를 양과 질적인 면에서 급성장시키며 46세에 중장으로 초특급 승진을 이어가며 전략사령관직에 오른 직후 5월 사태를 맞게 된다. 5월 21일 수하르토가 하야함으로써 일단 5월 사태의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5월 사태의 전주곡이었던 재야인사 납치살해 사건의 책임자로서의 혐의를 쓰고 1998년 8월 24일 자로 뿌라보워는 당시 국군사령관 겸 국방부장관인 위란또 장군에 의해 예편조치를 당하며 24년간의 군문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이후 신변을 염려한 그는 요르단으로 망명하여 평소 친분이 두텁던 압둘라 왕자의 보호를 받기에 이른다. 5월 사태 직후에는 그 배후세력으로 지목 받기도 하였으나 나중엔 위란또와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라는 논조가 유포되기도

하였다. 5월사태의 핵심인 '누가 뜨리삭띠 대학생에 대한 발포를 명령하였으며, 조직적으로 화교거주지에 대한 방화, 파괴와 부녀자 인권유린을 자행한 그룹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게임은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권력투쟁의 승자가 된 위란또 장군은 하비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방부장관 겸 국군사령관으로서 위세를 떨치다가 문민정부를 표방한 구스 두르 정권이 들어서자 차기 국군의 대권 주자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국군 사회정치국장과 함께 예편조치를 당하여 각각 정치안보조정장관과 동자부장관으로 입각하게 된다. 탄핵정국의 결정타를 맞은 구스 두르 정권이 2년여의 단명으로 끝나자 내각을 떠난 위란또는 2004년 대선에서 골까르당의 대선 주자로 나섰으나 민주당을 창당하여 이에 맞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에게 고배를 들게 된다. 재기를 노리던 그는 2009년 대선에서는 하누라(Hanura) 정당을 창당하여 골까르당 대선주자인 유습 깔라의 러닝 메이트로 나섰고, 한때의 라이벌이었던 뿌라보워는 게린드라(Gerindra) 정당을 창당하여 메가와띠의 러닝 메이트로 정계에 등장하였으나 모두 패배하고 말았다.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저서를 통해 살펴다

인재 손인식(서예가, 한인예총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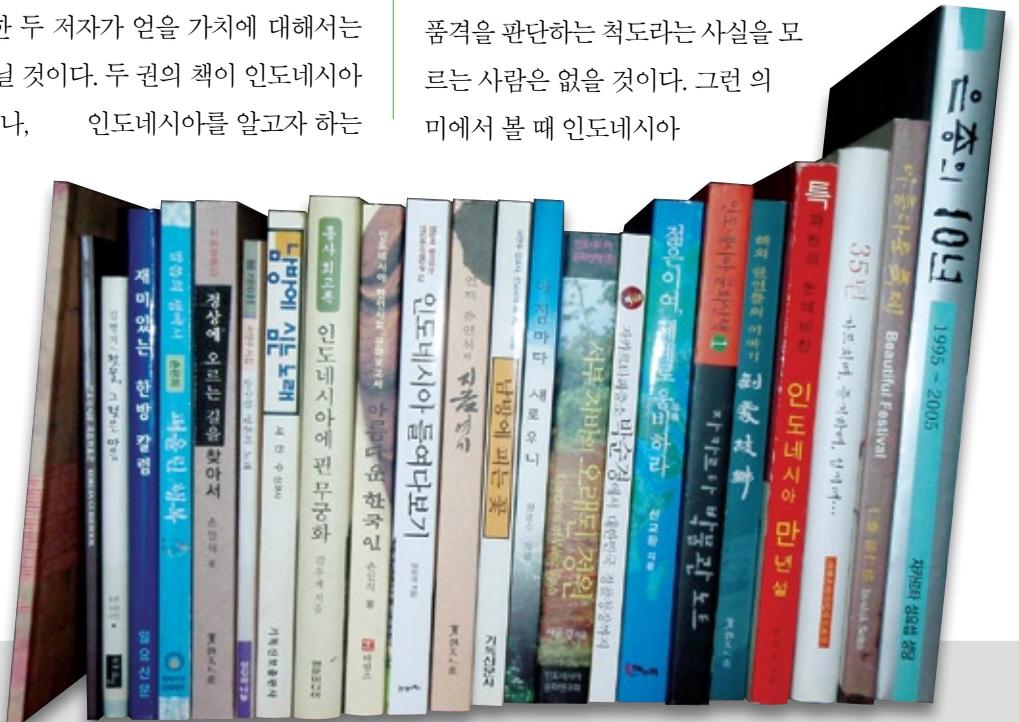
얼마 전 서울로부터 두 권의 책이 날아들었다.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들여다보기』로서, 두 권의 책은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전임 홍보관들인 김상술, 윤문한의 저술이다. 책의 내용은 인도네시아 알기 지침서 내지는 교양을 위한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면서 느낀 점과, 배우고 얻은 지식을 두 저자가 나름의 개성으로 풀어낸 것들이다

서두에 두 권의 책을 소개하는 진의는 바로 두 권의 책이 창출하는 문화적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함이다. 문화부처의 공무원으로서, 또 외교관으로서 전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한 두 저자가 얻을 가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닐 것이다. 두 권의 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인도네시아를 알고자 하는

한국 국내의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그 성과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두 권의 책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부여한 은근한

메시지는 한 번쯤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즉,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기여,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서의 창의력 발휘, 성실한 실천 등이 두 권의 책이 드러내는 교훈에 대해 차분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한 때나마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었지 않은가? 그들의 연구와 노력, 나름의 시각으로 쓰인 책을, 그들이 추억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독자로서 읽는 느낌, 참 쓸쓸한 덤이 아닐 수 없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한 사회가 지닌 문화적 역량이나, 드러난 문화 실재가 그 사회의 품격을 판단하는 척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높은 점수를 받을 여지가 많다. 그것은 바로 문화가 살아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를 즐기며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칼럼의 목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유하고 있는 문화, 바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문화의 실제들을 차근차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책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다. 길을 찾는 것도, 길을 내는 것도 그리고 길을 다듬는 것도, 책 속에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 이 말은 너무 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음미해야 할 말인지도 모른다. 바로 이 말의 실체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도 울곧게 살아 있다. 그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만들어낸 서른 네 권의 책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쓰인 길고 짧은 글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사회가 낳은 책과 그 저자들을 찾아보면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실재하는 소중한 문화 한 가지를 새겨보도록 하겠다.

재 인니 한인사회를 통해 발간된 책의 서막은 코데코 에너지 최계월 회장의 자서전이 장식하고 있다. 한인기업 해외진출의 개척자로 알려진 최 회장의 이야기는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라는 제목의 상, 하 권으로 1993년 권태하씨에 의해 쓰였다.

다음은 해외 선교의 표상 고 서만수 목사께서 출간한 책이다. 서 목사께서는 1994년 수필집 『남방에 심는 노래』를 출간하였다. 그 후로도 시집 『등개야』, 『남방에 피는 꽃』, 『가르치며 증거하며 심기며』 등을 연이어 탄생시켰는데, 이 모두는 그의 40여년 선교역사의 증거이기도 하다.

한-인니 수교 초기 한국 총영사관의 참사관이었던 고 김영호님은 1995년 『천년의 미소』를 발간했고, 대사관 무관으로 재임을 했던 서세호 장군은 1997년 책 제목 『인도네시아』를 출간했다. 한국국제학교 이상기 선생은 2000년에 시집 『그리운 말들이 길을 메운 채』와, 『그리움은 벗을 수 없는 옷이다』를 필두로, 풍자에세이 『거



고 서만수 목사 저서



이상기 씨 저서

꾸로 매달린 원숭이의 세상 훑쳐보기 1, 2권, 2008년에는 『복수, 링컨처럼 하라』를 우리 앞에 드러냈다. 문학도 손은희씨는 2001년 산문집 『말씀의 샘에서 퍼 올린 행복』을 길어냈고, 자카르타에서 20여 년간이나 월화차문 화원을 이끌면서 한국정신을 심었던 김명지 선생은 시집 『찾물, 그 젖은 마음』을 2002년에 탄생시켰다. 2003년에는 연합통신 황대일 기자에 의해 『특과원의 눈에 비친 인도네시아 만년설』이 베일을 벗었고, 2004년에는 김시현 한의사에 의해 『재미있는 한방 칼럼』이, 한 권의 책으로 공개되었다.

사람이나 사물을 겉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사람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반면 개인이나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들춰 긍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지혜다.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순기능이라 하겠다. 사람은 문화 향수자인 동시에 문화 창조자다. 어떤 문화에는 고객이지만 어떤 문화에는 창조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누구나 책의 저자가 될 수 있고 독자로서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 줄 글을 쓰는 일이 향기를 생산하는 일이라면, 한 줄 글을 읽는 것은 향기를 소유하는 일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낳은 책과 저자를 좀 더 찾아보자.

한마음교회 장영수 목사는 2005년 그의 설교집을 한 권 책으로 묶어 『아침마다 새로우니』로 영롱하게 드러냈다. 같은 해에 사공경 선생은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를 한 권으로 모아 공개했으며, 2008년에는 『서부자바의 오래된 정원』을 소개했다. 성요셉성당에서는 2006년 사진집 『은총의 10년』을 역사로 세웠으며, 2007년에는 고 신교환님의 『젊은이여 세계로 웅비하라』가 자카르타 하늘에 웅비했다. 2008년에는 대사관 경찰청장였던 박화진 총경에 의해 『자카르타파출소 박순경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장까지』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했더니, 2009년에는 무궁화유통 김우재 회장의 회고록 『인도네시아에 핀 무궁화』가 꽃을 피웠다.

이밖에도 안선근 교수는 1994년 『요지경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인니어 교본 세 권을 연이어 드러냈으며,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의 한인회원들은 2007년 박물관 안내 책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을 꾸며내기도 했다. 부끄럼을 무릅쓰고 밝히자면 서예가인 필

자도 출간의 대열에 끼었다. 2004년 『사랑의 훈민정음』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축제』, 『아름다운 한국인』, 『지금 여기』, 『정상에 오르는 길을 찾아서』, 그리고 자카르타 교민 52인과 공저한 『도처고향』 등 여섯 권을 인도네시아 살이 열매로 맺었다.

책으로 꾸며지지만 앉았을 뿐 문학과 전문 영역의 글들 또한 참으로 많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정보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글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크고 작은 매체 또는 인터넷의 여러 창구를 통해 한껏 역량을 드러냈다. 거명만 해도 많은 독자들께서 고개를 끄덕일 김문환, 한상재, 김은미, 유춘강, 김성월 님 등을 비롯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어려우리만치 많은 필자들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들을 풍성하게 풀어냈다.

한 줄 글을 쓰는 일, 지식과 경험, 느낌을 마음 안에 묻어두지만 앓고 창조적으로 풀어내는 노력이다. 스스로를 우주의 일원이며 사회의 공인으로 선포하는 일이며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다. 스스로와 타인, 역사와 현재, 미래를 사랑하는 지극한 실천이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는 지금 출간을 준비하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2010년 들어 재발족을 한 문인협회 회원들의 활동에 따라서도 더욱 많은 저술들이 이 사회에 드러날 것이다. 누구라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문화적 품격과 이에 대한 노력을 부정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사회 이웃들이 쓴 책을 통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묵묵히 존재하는 우리의 문화실체를 확인했다. 이 문화의 실체는 바로 긍정의 메시지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이다. 다른 이의 공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교훈이며 아름다운 삶을 위한 우리의 자산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빛낼 수 있기를 바란다.



손인식 씨 저서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짜콕마 섬 이야기 2편

말라리아 모기와 움막에서 하룻밤



김성월

수필가 · 방송 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오늘은 마을 입구 움막집 호나이(honai)에서 하룻밤 묵기로 계획했다. 아침에 짐정리하면서 나에게 중요한 건 선크림, 그러나 더 중요한 말라리아 약을 확인하고 가방에 챙겨 넣었다. 파푸아로 오기 전 과로로 입원해 있으면서 일을 추진했고 퇴 원하는 날 말라리아 약을 두 알 받아 왔다. 한 알은 그날, 나머지

한 알은 일주일 후 바로 내일 아침이 약 먹는 날이다.

동구 밖 울타리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어수선한 느낌이 든다. 어제 만났던 윌리우스에게 무슨 일 있는지 물었다. 어른 두 명과 3개월 된 아기가 말라리아 앓다가 지난밤에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말라리아에 걸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는 답해주기가 머쓱한지 텅수룩한 머리를 긁적거리다가 독수리 날개 퍼듯이 어깨를 들썩거리던 말했다.

“고열이 나며 덥다고 하다가 갑자기 춥다며 온 몸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다가 죽는데 빠르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수십 년 함께 지내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길고양이 죽음을 이야기하듯이 가볍게 들려왔다. 내가 입원했을 때 의사 간호사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를 보면서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죽기 싫었다. 그것도 모기에게 물려서 일주일 만에 죽는다는 건 더더욱. 나는 이일이 참 즐겁다. 그러나 내 목숨을 걸만한 일인가, 마음 밑바닥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하더니, 촬영이요 뭐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은 맘이 세제거품처럼 부풀어지고 있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걸 윌리우스가 보더니 수로바 마을은 선선한 기후라서 말라리아모기가 거의 없는데 죽은 사람은 다른 지역에 나무하러 갔다가 물렸다고 나를 위로했다. 그 말은 슬픈 위안이지 수로바지역이 말라리아모기들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아니다. 윌리우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방을 열어 손으로 더듬거리 말라리아 약을 확인했다. 지퍼를 슬며시 닫으려다가 내일 아침에 먹어야 할 약을 꺼내 입에 털어 넣으면서 모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다. 어쩌든지 모기에게 안 물리게 해 달라고.

움막 지붕은 갈대로 엮어졌다. 지붕에서 지네처럼 생긴 벌레 한 마리가 툭툭 떨어지면서 몸이 움츠러들자 그걸 보는 내 몸과 마음도 움츠러들었다. 마을 입구에서 잔다는 것이 두렵다. 원시 생활하는 그들이 혹여 밤에 내 움막으로 쳐들어 올까봐 무서웠고, 앵앵거릴 모기도 무서웠다. 낮선 산속에 혼자 잔다는 것이 무서워 읊내 여고생과 함께 자기로 했다.

한밤중이다. 풀벌레도 잠이 들었다. 그런데 난 잠이



위: 다 익은 호림은 꼬떼까로 사용
아래: 노켄 메고 고구마를 먹는 파푸아 여인

오지 않아 눈을 떴다. 움막 속에서 눈을 떠도 감은 것처럼 캄캄하다. 조용한 가운데 멀리서 말라리아로 죽은 이들을 슬퍼하는 곡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귀 기울이니 그건 곡소리가 아니라 앵앵거리는 모기소리였다. 모기가 고추밭에 살충제 뿌리듯이 움막 안에 모기약을 뿌려댔다. 다음날 나는 멀쩡하게 눈을 떴고 모기약 제약회사에게 감사했다.

남자의 꼬떼까 여자의 살리와 노켄

와메나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데 꼬떼꼬 착용한 할아버지가 ‘포토,포토’ 하면서 나를 따라왔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식겁(?)하면서도 그 신기한 차림의 할아버지를 안보는 척 하면서 훑쳐봤다. 할아버지는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 찍길 원했다. ‘포토’한다고 무턱대고 찍었다가는 사진 한 장에 10\$도 쥐야하므로 찍기 전에 모델료를 흥정하는 것이 좋다.

남자의 남자의 꼬떼까(Koteka) 여자의 살리(Sali)와 노켄(Noken)이 가장 이색적이었다. 이처럼 꼬떼꼬 차림이 나에게 신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수로바 마을에서 꼬떼꼬 만드는 방법과 여자들 살리(치마)와 노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꼬떼까는 호림(horim)을 심어 오이 굽기의 조롱박이 열리면 그것으로 꼬떼까를 만든다. 잘 익은 호림을 따서 불에 살짝 익힌 후 속을 파내고 보름간 햇볕에 말린다. 그 다음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윗부분은 실을 끼워 허리춤에 묶고 아랫부분은 남자의 거시기를 끼우고 윗부분과 연결된 실로 고환을 묶어 둔다. 그래야만 걸어 다녀도 빠지지 않기 때문이란단다. 남자들의 정장차림은 꼬떼까와 넥타를 메고 약간의 액세서리로 팔뚝에 새의 깃털을 팔에 하고 다닌다.

다음은 여자들이 치마로 입고 다니는 살리(sali)이다. 고산의 고목 껍질을 벗겨 잘 말린다. 껍질이 가늘게 말려지면 허리길이에 맞게 단단한 끈을 두고 하나씩 엮어 만든다. 이 살리는 보통 서너 개를 껴입어야 속이 안 보인다. 아주 옛날 그곳의 여자들은 월경할 때 아주 보드라운 갈대를 말려서 기저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여자들은 보면 하나같이 이마에 끈을 묶은 듯 걸고 등에는 망태기 같은 걸 달고 다닌다. 이것을 노켄(Noken)이라고 하는데 노켄(Noken)은 결혼할 때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선물이다. 그런 이유로 머리에서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하며 머리에다 걸고 다닌다. 노켄의 용도는 여자들에게 핸드백도 되고시장바구니도된다.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 업는포대기로도쓰이고 주식이 고구마인 그들이 밭으로 가면 고구마를 캐 담은 망태기 역할도 한다. 끈은 머리에 띠처럼 두르고 등에는 망태기 같은 걸 하고 다닌다.



훈제 미라(Mummy)

추장이 유언으로 미라를 만들었고 삼백 칠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미라는 훈제 미라였다. 생명이 끊어지자마자 해부하여 뱃속의 장기들을 들어내고 살갓을 꼬챙이로 쿡쿡 찔러 연기에 그을렸다고 한다. 추장은 꼬떼까를 한 채로 미라가 돼 있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인도네시아 지회

주소: Korea Center Building,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0 6655 / 팩스: 021) 520 3535

평통 동정

밥퍼 행사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인니지회는 2010년 상반기 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 4월 16일 사랑의 실천운동인 ‘밥퍼’ 행사를 실시하였다.

평통위원 및 위원 부인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빛교회 부인회의 협조를 받아 북부 자카르타 끌라빠 가딩에 소재한 밥퍼 해피센터에서 400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판중 뿌리옥 근교의 기차역과 간이 학교 주변 주민들에게 배식을 실시하였으며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밥퍼 행사에서 봉사하고 있는 평통 인니지회 김광현 회장, 안선근 간사, 최대호 위원(좌로부터), 그리고 채영애 위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천안함 희생자 분향

2010년 4월 27일 오전 평통자문회의 인니지회 위원들이 대사관에 마련된 천안함 침몰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평통위원들은 분향소를 찾기 30분 전 코리아 센터에 소재하는 평통사무실에 모여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사관저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자 분향소에 분향하고 있는 평통 인니지회 위원들

언론이 본 평통

“정신차려라” 정부 혼수에 北 ‘부동산 강탈’ 로 응수

파이낸셜뉴스 2010.4.23

“예견된 수순이다. 그러나 ‘초강수’ 를 뒀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소유 부동산 전면 조사→남한 정부 측 소유 부동산 동결 및 몰수→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대북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북한이 대남 압박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무반응·무대응’ 방침에 있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의 대북 비난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남북, ‘강대강’ 정면충돌

북한은 지난 2월 열린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자 간 실무회담에서 일방적으로 ‘3월 개성관광·4월 금강산관광 재개안’ 을 제시한 이후 남한 정부의 반응이 없자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압박 공세를 취해왔다.

북한이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때는 지난달 1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통일부와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발송하고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조사’ 방침을 통보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이기도 하다.

북한은 예정대로 같은 달 25~31일 부동산조사를

전면 실시한 뒤 이달 13일 이산가족면회소, 문화회관, 온천장 등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곳을 동결했다. 북측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금강산지구에 근무하는 우리 측 관리인원에게 “남측이 우리의 조치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재산권 침해’ 행위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한발짝 더 나아가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원을 들여 김일성 생일(태양절)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면서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 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부동산 몰수 및 추가 동결 조치’ 를 발표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 이 대통령을 ‘역도’ 로, 현 장관을 ‘괴뢰통일부 장관’ 으로 지칭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표현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KORINDO.

요즘 뉴스를 들을 때면 단순히 듣기만 할 뿐이지 사용 언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전을 찾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김포와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병 했다고 축산가들은 하루 아침에 20년간 일하던 일터를 잃어 버렸다고 눈물만 섞인 목소리로 나와 하소연 하듯 인터뷰를 합니다.

구제역이란 어려운 이름 때문인지 아주 많이 희한한 병 같습니다. 구제역 [Mouse and foot Disease]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의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법적 통계를 낼 수 있는 사망률)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발굽병 이라는 뜻 입니다. 이렇듯 우리 말도 우리가 선듯 알아 듣지 못하고 그 의미를 찾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대한 첫 인사라고도 합니다. 아기들은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때까지 의사 표현을 울음으로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도구와 행동 언어를 통해 마음과 뜻하는 바를 전달 합니다. 광고나 영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 하기도 하고 아기가 울음을 통해 엄마에게 배고픔을 표현 하듯, 천안호 사고로 삶을 달리한 고인들의 위해 대사관에 분향소를 마련해 두고, 말로 표현 하진 않았지만 헌화 하고 묵념 하거나 절을 올리는 행위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표현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얼만큼 내 자신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표현 하며 살고 계시나요?



바람 불어 좋은 날 (Manisnya Hidup)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내림 사랑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만세 어머니는 딸이 남자 친구의 아이를 갖었다는 말에 자존심 다 버리고 딸의 남자 친구 상준 집 앞에서 추운날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5시간이나 기다립니다. 엄마가 문전박대 받자 화가난 만세가 상준에게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Ibumu tahu dia di sini

tapi ibumu tidak membukakan pintu untuknya.

Ibumu menggigil kedinginan.

어머니가 우리엄마 여기 이려고 계신거 알면서도 문 안 열어 줘서 이렇게 떨고 계셨어.

인도네시아어에서 떨림을 표현 하는 단어가 여러개 있습니다.

Gigil (목소리나 몸이)추위나, 열, 두려움으로 떨릴때 표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떨리 경우에 사용 외에도 **Getar / Gemetar / Debar (Deg-degan)** 역시 진동, 떨림을 표현 하는 단어 입니다.

Gemetar의 경우 **Gigil** 와 유사하게 사용되며 춥거나, 아프거나, 충격을 받았다거나 이런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몸이 떨리는 경우를 표현 합니다.

Getar의 경우는 지진이나 외부 진동에 의해 흔들리는 경우, 핸드폰 진동도 **Getar**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문장에 따라 달리 표현 됩니다.

Debar (Deg-degan) 시험이나 인터뷰로 인한 긴장 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섰을때 떨림을 표현 할때 사용 됩니다.

예)

Tolong rubah hpmu ke mode **getar**.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 주십시오.

Rumah saya **bergetar** karena gempa bumi.

지진으로 집이 흔들린다.

Tanganku **gemetaran** karena memegang salju.

눈을 만졌더니 (손이 시려서) 손이 떨린다.

Jantungnya **berdebar** karena menunggu hasil wawancara.

면접 결과를 기다리자니 심장이 떨린다.

Dia merasa sangat **deg-degan** saat bertemu dengan gadis yang dia sukai.

좋아하는 소녀를 마주하자 몹시 떨린다.

“미운정 들겠다 “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를 거듭해 갈 수록 서로에 대한 미움이 축은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 마음이 서로를 아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 되면서 오복과 대한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 합니다. 오복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것 같자 내심 불안한 대한은 오복에게 디자인 시안을 언제까지 줄꺼냐며 재촉 하자 오복이 말합니다.



Kukira kau memberiku **tenggat waktu** sampai besok pagi.

전 기한일을 내일까지 주신줄 알았는데요.

Tenggat waktu는 시간의 한계를 뜻하며 **Batas Waktu**와 같이 쓰입니다.

Tenggat waktu 조금더 공식 어체로 주로 업무상의 보고를 하거나 할때 사용 합니다.

예)

Batas waktu pendaftaran sekolah tinggal dua hari lagi.

학교 등록 마감일이 2일 밖에 남지 않았다.

2010년도 부인회 취미활동반 프로그램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보람된 생활을 위하여 2010년도 취미활동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설된 반들도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하고 알찬 인도네시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영교실	일시	강사	기간	장소	연락처
플 롯	월요일 10:00-11:30	유은영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69-2166 0812-924-1860
서 예	목요일 09:00-12:00	손인식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39-7153 0815-936-9114
컴퓨터 (신설반)	토요일 10:30 - 12:00 13:00 - 14:30	전문강사	현재모집중	STC Senayan 4층 네일 갤러리	0812-8802-5799
유화반	금요일 10:00-12:30	전문강사	현재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0818-916-566
일어반 (신설반)	토요일 오전/오후	전문강사	현재모집중		부인회
네일아트 (신설반)	화요일 10:30-12:00	강봉주	현재모집중	STC Senayan 4층 네일 갤러리	0856-9192-5376
	목요일 10:30-12:00	강봉주	현재모집중		0811-990-684

부인회 연락처 (신청 및 문의) : 총 무: 박성영 0816-160-5911, 류경희 0817-155-864

아버지의 마을

이상기

아버지의 마을에도 가을이 가고 있을까.
 가난한 얼굴로 비 맞고 있을까
 마른 호박덩굴도 비 맞으며
 그래
 그래
 꼬덕이고 있을까

아니면,
 막차 끊기고도
 돌아서지 못하는 기다림들이
 들맹이 굴리며 서성이고 있을까
 이따금 바람에 등 떠밀려
 울컥울컥
 슬퍼하고 있을까

차가운 비 맞다가
 도둑인 양
 낮익은 얼굴들이 두려워
 어둠 속에서도 난 작아지는데
 추운 주머니만 만지작거리다
 하나하나 소중한 이름들도
 키 작은 노년처럼 잊혀 가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을에도 가을이 지고 있을까
 바람과 살 섞으며
 차례로 갈대가 기울듯
 비어서 아름다운 가을이
 등 보이며 떠나고 있을까

거부하라
 거부하라
 기어이는 긍정하라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느티나무 굵은 가지 흔들며
 길을 쓸고 있을까

시인 이상기

충북 진천 생.
 도종환과 <미운 오리> 동인
 시집 <그리운 말들이 길을 메운 채>와
 수필집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의 세상 훑쳐보기>,
 <복수, 링컨처럼 해라>와
 현재 JKS 국어교사, <시평>에 '인도네시아 통신' 연재

뒷말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시에도 '아버님의 마을'이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곤혹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스쳤던 기억이 새롭다.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 그리고 이왕 쓰려면 그보다 더 나은 글을 써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단, 지금도 그 욕심이 욕심 그대로 남아 있는지는? 말 못하겠다. 당연한 말이지만 고향인 아버지의 마을은 사실 내 마을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을은 언제부턴가 아버지와 함께 울고 웃으며 나이를 먹고 있었다. 아! 아직 나는 이 마을에서조차 주인이 못 된다는 느낌이였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찾아간 고향마을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마을의 모든 모습이나 표정은? 이런! 여전히 아버지에게나 꼭 어울리는 것이였다. 아버지를 닮지 못하는 것을 '불초(不肖)라 한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다. 어찌면 고향마을은 여전히 내세울 것 없고 가난한 얼굴을 한 채 언제까지고 아버지의 마을로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야 고백하거나와 나는 그 마을이 변함없이 아버지의 마을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음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어떡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을은 비록 말 없으나 이 자식을, 이 마을 사람들을, 아니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따뜻하고 믿음직한 시선으로 고개 꼬덕이며 응원해주고 있을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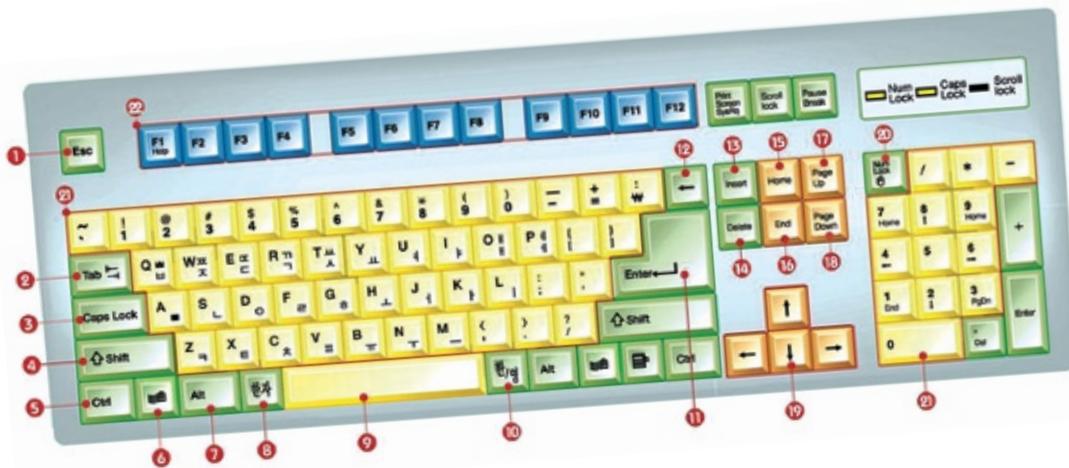
컴퓨터 해부하기

제가 매회 컴퓨터를 바르게 이해하고 쓰자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찌하는 게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지 고민 끝에 이번에는 컴퓨터 기본 사용에 유용한 팁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이놈들의 숨은 기능들을 찾아내서 전부 마스터 하면 정말 빠르고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김 신
IT Engineer
kmsms007@gmail.com



키보드 편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가장 많이 두드리는 것이 이 키보드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컴퓨터가 먹통 되었다고 본체를 두드리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 .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람의 손길이 가는 것이 이 키보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들은 글자 부분과 숫자 부분일 텐데요. 이런 부분 말고도 키보드에는 참 여러 가지 키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키들의 기본기능 말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의 숨은 기능들을 함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인 화면에서의 단축키 기능

Alt + F4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창을 닫음.

보통 화면 오른쪽에 상단에 X 표시된 부분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Ctrl + C 복사 기능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여러가지 메뉴중에 복사라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

Ctrl + V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여러가지 메뉴중에 붙여넣기라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

Ctrl + Esc 시작 메뉴 표시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시작이라는 곳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기능.

Alt + Enter 윈도우 창에서 창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
인터넷 화면창 우측 상단에 있는 X 표시 좌측 옆에 있는 네 모난 상자를 누르는 것과 동일한 기능

Alt + Tab 열려있는 창들 사이의 전환

여러 개의 화면을 띄워 놓으면 화면 하단에 열려있는 창들이 표시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마우스 조작없이 다른 창으로 전환 할수 있는 기능

● 윈도우키(키보드 그림 6번)를 활용한 단축키 기능



+ D 모든 창 최소화

현재 열려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최소화 하는 기능.



+ Shift + M 모든 창 최소화 취소

위 기능과 반대되는 기능.



+ E 윈도우 탐색기 실행



+ F 시작메뉴에 있는 검색의 파일 또는 폴더 실행

● 웹 브라우저 에서의 단축키 기능

F1 도움말 기능

열려있는 화면에서 F1 을 누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도움말 표시

F11 웹브라우저의 전체화면 표시와 기본브라우저 보기의 토글 기능

잘 이해 안되시면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해 보시길.. 뭔가 달라지는걸 알수 있습니다.

Alt + Home 해당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

Alt + 오른쪽 화살표 다음페이지로 이동

Alt + 왼쪽 화살표 이전 페이지로 이동

Page Up 페이지 단위로 문서 위로 이동

Page Down 페이지 단위로 문서 아래로 이동

Home 문서의 처음으로 이동

End 문서의 끝으로 이동

Ctrl + F 현재 페이지에서 단어 찾기

Ctrl + N 새 창 열기

Ctrl + W 현재 창 닫기

Ctrl + S 현재 페이지 저장

Ctrl + P 활성화 된 페이지 인쇄

Ctrl + D 현재 페이지 즐겨찾기에 추가

이상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기능이 숨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컴퓨터 사용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키부터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전부터 키보드에는 이러한 숨은 기능들이 많이 있었으나 마우스라는 놈의 등장으로 묻혀버린 기능으로 일반 유저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 없이도 윈도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윈도우 7 에도 추가적으로 기능이 탑재되어 나오는 걸 보면 키보드 기능키는 아직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듯 합니다.

혹여 이거 누르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분도 계실 듯 합니다만 전혀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마구마구 눌러 보시면서 기능을 익히신다면 무수히 많은 컴맹들 앞에서 컴도사 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컴퓨터!!

자주 접하지만 항상 하는 것만 하게 되므로 응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날이 올 것 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컴도사가 되는 그날까지 컴퓨터 끝까지 해부해 보겠습니다.



재인니한인문화연구회

문화탐방 기행문 공모전

-눈부신 푸름으로 서로 통하네-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인니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타국에서 살아가는데 안정감과 친근감을 갖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니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재인식하도록 격려하고, 교민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화합의 분위기에 일익을 담당하려는 목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자합니다.

1. 주제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기행문
2. 원고 모집 기간 : 2010년 6월~9월
3. 대상 : 인니 거주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4. 원고분량: A4용지 2장 이상(글자모양=신명조, 글자크기=11, 행간=160%)
5. 보내실 곳: love.indonesia@hotmail.com
6. 시상 및 시상송회 10월 중
7. 시상내역: 10명(일반부 5명, 학생부 5명 별도 시상)
 각 대상, 우수상, 특별상, 입선, 가작 *참가상도 있습니다.
8. 문의처 : 사공경(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박정자(0815.1070.3065 / poemever@hanmail.net)

제3회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 열린강좌

-글곡의 맥사-



강사: 김문환 한인뉴스 논설위원 / 칼럼리스트

주제: 제 1,2대 수카르노, 수하르토 대통령을 통해서 본
 인니현대사 (1945년~ 1998년)

일시: 5월 15일(토) 10시~12시 30분 (강의,질문,다과)

장소: 한인회문화회관(도서관)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 · 로 ·젝 · 트

글:이전순

행복한 아이의 비밀 6

엄격한 부모

오월입니다. 아래로는 아이들에게 위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과 감사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설렘과 부담이 마음속에 교차하지요. 특히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큰 선물 등으로 오히려 아니한 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부모들이 자신들을 더없이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선물의 내용이나 이벤트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는 부모의 일관적이고 엄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응석과 자유를 원하는 줄 알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온갖 말썽을 피우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불행한 문제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에게 확실히 제동을 걸어줄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 부모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기 원하며 그것이 바로 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비결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은 결혼사정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양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 석달 동안 온갖 말썽을 피우면서 당신과 당신 가족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아이는 당신의 결혼생활이나 정신의 건강상태, 관심의 정도, 훈육방법이 충분히 엄격한 가등에 대해 알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안심하고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는 이 새로운 가족이 과거의 가족처럼 무너질지 아닌

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걸 시험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입양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모든 어린이는 똑같지요.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통제할 것인지 아닌지 알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피울 때 부모의 반응은 대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격적인 반응, 수동적인 반응, 그리고 단호한 반응입니다.

공격적인 부모

공격적인 부모는 거의 늘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 화는 아이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결혼생활이나 직업, 사람들, 혹은 자기가 부모라는 사실과 부모이고 싶지 않다는 것(아이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때문에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긴장과 불만을 아이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악을 쓰는 것을 일종의 사랑이라 여기고 이렇게 이유를 달기도 합니다. '적어도 내게 관심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크게 지르면 지르는 만큼 나한테 신경을 쓴다는 거지!' 아이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부모에게 맞고함을 지르고, 사태는 곧 싸움으로 발전하여 가족 모두가 험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 공격적인 부모는 아이들을 억누르고 뜻을 완전히 꺾어놓기 때문에 아이들은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복종만을 원한다면, 무섭게 대하면 됩니다.

다. 두려워할 테니까요. 그러나 또한 반항도 겪을 겁니다. 아이를 못살게 구는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십대가 되었을 때 심각한 반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격적인 부모들은 아이가 늘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떠는 성격이 되게 하거나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성격, 혹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성격을 갖게 만듭니다.

소극적인 부모

이것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주로 엄마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아이의 문제행동이나 말썽을 피우는 행동에 대해 혼자 끙끙거리거나, 걱정만 끌어안고 아이에게 감성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행여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 혹은 엄격하게 대하거나 단호하게 대하면 아이가 엄마를 피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수의 부모는 참고 참다가 끝내는 극도의 화를 내고 말게 되지요. 혹 본인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을까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부모들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이런 유형이며, 이이가 어리거나 이제 막 부모가 된 경우에도 이런 유형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 다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런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부모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 뿐이며 고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공격적이거나 소극적인 부모가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엄격한 부모'를 소개하도록 하지요.

엄격한 부모

엄격한 부모는 분명하고 단호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자신감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아이들은 부모가 설령 "너, 혼 좀 나아줬다"라고 말할 때도 자신들을 억압하거나 굴욕적으로 다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호함이란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공격적이었다면 여러분이 엄격해진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엄격함과 단호함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타고난 성격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신도 시간을 가지고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요.

엄격함의 첫 번째 요소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태도에 이미 존재합니다. 다음 내용 중 자신의 모습과 가까운 쪽에 표시를 해 보십시오

'물렁물렁한' 부모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낮춘다.

늘 나보다 다른 식구를 우선시한다.

아이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된다.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의 자연스런 창의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 아이들은 훗날 유명해질지도 모른다.

내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아니다.

인생은 힘겨운 싸움이다.

나는 그저 평화를 바랄 뿐이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고 아이들에게 지고 산다. 그 상태가 오래 못 가서 유감이지만.

'단호한' 부모는 스스로를 중요하다고 여긴다.

다른 가족 못지않게 나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제일 소중한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의 불만도 성장의 일부이다.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는 없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선 나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할 필요가 있다. 나 자신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내 배우자와 우리 결혼생활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만큼 최우선적인 일이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재미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바르게 잘 따라준다면 생활이 훨씬 편안해진다. 난 어른으로서 이 모든 일의 책임자다.

엄격함의 두 번째 요소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1. 자신의 마음부터 분명하게 한다.

부모인 여러분이 아이한테 요구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며 아이와 의논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며 이익을 볼 것입니다.

2. 분명한 대면을 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가서 아이가 여러분을 쳐다보게 하십시오. 아이가 여러분을 보기 전에는 지시를 하지 마십시오.

3. 명확하게 말한다.

"지금 ~를 하기 바란다. 알겠니?"라고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시오. 예 혹은 아니오라는 대답 역시 확실히 받아 놓아야 합니다.

4. 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말한다.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반복해서 얘기하십시오. 토론을 하거나, 이유를 달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 후 침착하게 말하십시오. 그냥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5.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가까이 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못 끝낼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만약 아이가 일을 다 끝냈다면 너무 요란스럽게 칭찬하지 말고 “잘했어”하며 가볍게 웃어주면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재교육하는 훈련과정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므로 ‘어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기다림과 반복에 투자한 시간은 나중에 몇천 배로 돌아옵니다. 비결은 한마디로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집을 떠나갈 듯 난리를 쳐도 부모가 끄떡하지 않고 단호하게 나가면 아이는 순순히 저항을 포기하게 됩니다. 일단 아이들이 부모의 엄격함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힘들게 아이와 씨름해야 했던 그전과 비교해볼 때 아주 놀랍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 도우미 언니들이 있어서 엄마의 집안일을 거들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네팔에서 파푸아뉴기니, 니카라과까지 어린이들이 책임감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지켜보는 어른의 보호 하에 각자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상당히 즐겁고 자랑스럽게 해냅니다.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보니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집안일이나 뭔가 책임감 있는 일을 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중에 자립적인 어른이 될 수도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일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 수저를 놓게 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작은 일은 만 두 살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일거리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지요. 규칙적이고 쉬우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과 관련 있고 가족 전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골

라서 주어보십시오. 만 네 살이 되면 자기가 다 먹은 접시를 설거지통에 넣는 것뿐 아니라 식탁 차리는 것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을 할 때가 되면 그것을 주지시키고 일을 끝낸 후 확인 및 뒷정리를 해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기억해서 하게 합니다. 칭찬을 해주고 자랑스러워하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요즘은 자존심이라든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 아이들이 노력하는 것을 높이 사는 것 등이 대단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자존심이란 주위에 기여를 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를 최고로 위해 주었던 부모로부터 떨어져 세상 속으로 나오면 결국 이 넓은 세상의 작은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자만심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쭈그러들 뿐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집 안 일을 도우면서 자라난 십대들의 경우 안 하겠다고 반항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해왔던 일이니까요. 아이가 열여덟 살이 되면 집안일을 부모만큼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아이들에게 일을 분담시킬 때는 아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과 시큰둥하고 재미없어하는 일을 골고루 섞어 주십시오. 세상살이가 그렇듯이 언제나 입맛에 맞는 일만 골라 할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기간 같은 때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공부와 집안일 돕기는 항상 해야 하는 일이므로 그만두게 하지는 마십시오. 요리, 청소, 세탁, 애완동물 돌보기, 예산 짜기, 시간관리, 가족 간의 협상 및 팀웍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기본 영역에서 자녀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날 즈음이 되면 스스로를 돌볼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로 자립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집안일에서 해방되기 위해 더 빨리 독립해 나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엄격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한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애정과 엄격함이 균형을 이룬 양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와 또 해야 할 분명한 역할들을 잘 알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태도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오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들의 양육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엄격함과 사랑이 어울어진 멋진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3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 시행요강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3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원서접수 : 2010년 5월 3일(월) ~ 5월 12일(수)
2. 접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3. 응시료 및 준비물 : 과목당 30만 Rp,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시험일 및 시험시간

시험일		시간	비고
5.15 (토)	국어	08:30~10:00(90분)	시험시작 30분 전에 도착, 매 교시마다 시험 10분전 입실
	논술	10:40~12:40(120분)	
5.16 (일)	수학	08:30~10:30(120분)	
	영어	11:10~12:10(60분)	

5. 시험유형 및 출제범위

□ 국어경시대회

- 가) 출제영역 : 언어기초 영역, 언어기능 영역, 사고영역 평가
- 나) 문항수 : 총 45문항
- 다) 출제 범위 : 고교 전 교육과정
-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 90 분
 - 배점 : 객관식 35문항, 주관식 10문항
(주관식은 문항 당 3점이며 객관식은 문항 당 2점)

□ 논술경시대회

- 가) 출제영역 :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 나) 문항수 : 일반 논술 1문항
- 다) 출제 범위 :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범교과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 120분이며 원고지 1600자 내외로 한다.
(시험지와 답안지는 별도로 분리한다)
 - 배점 : 100점(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수학경시대회

- 가) 출제영역 : 계산능력, 이해능력, 적용능력, 문제해결능력
- 나) 문항수 : 총 30문항(학교과정수준의 문제 25문제/경시대회용 문제 5문제)
- 다) 출제 범위 : [수학10-가나]전체, [수학1]전체
-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 120분
 - 배점 : 객관식 70%, 주관식 30%
(각 문항당 배점이 다르며, 단답형 주관식 문제)

□ 영어경시대회

- 가) 출제영역 : 문법, 어휘, 독해
- 나) 문항수 : 총 45문항(객관식)
- 다) 출제 범위 : 영어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사적인 지문과 고급 어휘 사용 및 정확한 문법을 체크할 수 있는 내용
- 라) 시험시간 및 배점
 - 시험시간 : 60분
 - 배점 : 100점 만점으로 각 문항 당 배점이 다름.

6. 응시 자격

-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 국내, 외 대학 진학희망자
 - 한국 학교 및 외국계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재외국민)

7. 수상자 발표일

: 2010년 6월 11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8. 시상 내역

상명	인원	시상내역
대상	과목별 1명	상장 및 부상
최우수상	과목별 2명	"
우수상	과목별 3명	"
장려상	과목별 5명	"

9. 응시자 시상 및 특전

본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로 수상실적은 대학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수상경력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자료 및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수학 특기적 재능 보유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 사항

- 수험표는 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고등부 교무실(845-0455)

-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http://www.jik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주관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3 후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KOTRA, KOICA, 재인니한인회, 재인니부인회, LG전자, 삼성전자,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대한항공, CJ, 코린도 그룹



북한의 3대 후계세습과 인민생활의 피해

김정일은 1970년부터 김일성의 업적을 신격화하는 사업을 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소위 “태양절”로 명명한 것이다. 이는 김일성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위를 부각하기 위한 대표적인 상징조작에 해당한다.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는 비단 김정일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계승되는 효과를 누린다. 북한은 2010년부터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 이어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의 생일인 1월 18일도 공식 휴일로 지정했다.

지난해부터 북한 간부들에게는 김정은의 존재가 집중 부각되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3대 세습 문제가 표면위로 올라온 것은 김정일의 건강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 김정일은 벌써 칠순을 눈앞에 둘 정도로 고령이 됐고, 당뇨 합병증에 뇌졸중까지 맞게 되자 북한 지도부에게 후계자 문제는 적극 고려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뇌의학 전문의들은 고령의 김정일이 또다시 스트로크를 맞게 된다면 통치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후계자는 김정일이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그가 바로 3남 김정은인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김정은에 대한 후계작업이 과잉충성 경쟁을 불러오자 후계사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지만 간부들을 대상으로는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데일리NK가 지난해 11월 입수한 북한 시도당

간부들 대상 구두 강연 필사본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이 김정일의 품모와 능력을 그대로 빼닮아 차세대 지도자로 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간부들에게 5장에 달하는 문건을 모두 외우도록 지시했다. 문건에는 김정은이야말로 김정일을 곁에서 가장 잘 보필하며 적과 싸울 군사적 지략마저 탁월하게 갖추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가 외국 유학파이자 컴퓨터에 능하다는 점을 대서특필해 과학기술에 천재적 영재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무력강화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를 이어 위대한 영장을 보필하게 된 '조선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북한의 선전내용은 '인민을 위해 당이 있고, 당을 위해 지도자가 있다'는 공산당의 이론적 원리마저 파괴해 '지도자를 위해 당이 있고, 당을 위해 인민이 있다'는 기괴한 독재 논리로 변형시켜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3대 세습의 기만성은 주민들의 피폐한 삶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일가와 측근들의 사치와 방탕한 생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북한 주민들은 화폐개혁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 때문에 생활고가 극심해진 상태이며, 아사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물가 폭등과 외화 단속은 주민들의 장사 심리를 푹푹 묶어 버렸다. 화폐개혁 당시 교환 한도를 제한해 주민이 보유한 현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신권 가치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쌀값(4월 11일 현재 550원 수준)을 비롯한 물품가격은 화폐개혁 직후에 비해 수십 배가 상승했다. 외화거래 금지 조치까지 시행하면서 환율도 널뛰기를 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원조 중단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화폐개혁 이후 생활고가 시달리던 극빈층과 노년층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집단 자살하는 가족이 늘고 있다. 북한에서는 자살마저도 반혁명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서에는 장군님의

건강과 축복을 빌어 사태 확산을 막는다고 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실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김정일은 군사력 증강과 함께 측근들의 관리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발효 이후 김정일이 해외에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북한은 김정일의 통치자금 관리 전담 조직인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을 통합했다. 39호실의 통치자금은 미사일 등 무기와 마약 및 위조달러 거래, 각종 외화벌이를 통해 조성된다. 이 돈은 김정일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측근들에게 최고급 벤츠 승용차나 롤렉스 시계 같은 선물을 하사하고 자신과 일가 친척의 호화생활을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김정일의 업적 선전 차원에서 대규모 야외 불꽃 축제를 조직해 빈축을 샀다.

올해 김일성 생일 98주년은 북한 주민에게 그야말로 암흑의 세월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에도 변화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외부정보를 접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고 정권에 대한 불만도 김일성 시대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과 정권이 되돌릴 수 없는 불신의 길로 몰아 넣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자연사라는 희망적인 기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자유사조 유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외부자금을 통해 적극적인 북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희망을..

지난 3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해 채택된 북한인권 개선 권고문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리에서 비릿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참혹하고 끔찍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어지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저명한 국제사회의 인권운동가들은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 실패로, 북한 지도부의 체제 보존의 위기감으로 인해 주민에 대한 참혹한 통제가 지속되고, 버려진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의한 아사자가 대량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닫혀진 북녘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 하겠다. 비릿 문타폰 보고관은 그 하나의 방법으로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문, 폭력 등은 로마규정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국제사법기구를 통해 북한 권력층을 심판함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인권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 결성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rimes Against Humanity Investigation Committee(CIC))는 김정일을 북한반인도 범죄 책임자로 지목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압박이 의미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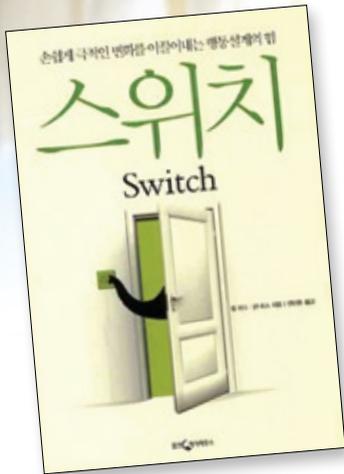
김 현 옥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고문

또한 권오곤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공개처형, 강제노동, 폭행 등은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하고, 한국인 및 일본인 납치도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북한이 계속적으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정일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면책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적시해주고 있다.

북한의 위기는, 권력자들에게는 체제의 위기이지만 힘없는 주민들에게는 생명의 위기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을 생명의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당국에 대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수많은 조사와 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유엔은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통해 6년간 11개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부당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유엔의 최상층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인,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에서의 '인도에 반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나서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을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호소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위치 - 손쉽게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설계의 힘

저자 칩히스, 댄히스 | 역자 안진환 |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작은 손짓 하나로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 '스위치'의 비밀!

<스틱>의 저자이자 조직행동론 전문가인 히스 형제가 들려주는 성공적인 변화 『스위치』. 이 책은 조직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최신 연구,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행동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릇 하나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대생의 이야기에서부터 424컬레 장갑 무더기로 이사회를 발칵 뒤집은 신입사원의 이야기, 몰락해가던 브라질 철도회사를 4개의 메시지로 기사회생시킨 CEO의 성공담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간단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 뒤에는 공통의 패턴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3가지 요소를 추출해 왜 대부분의 변화는 실패하는데 어떤 변화는 성공하는지, 그 비밀을 낱알이 파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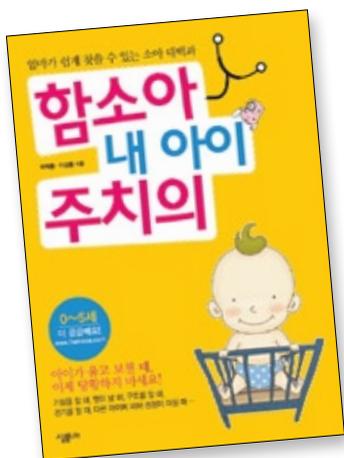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

저자 히라타 겐야 | 역자 김인호 | 그림 가토 구니오 | 출판사 바다어린이

할멈, 생각나? 우리 살던 그 옛 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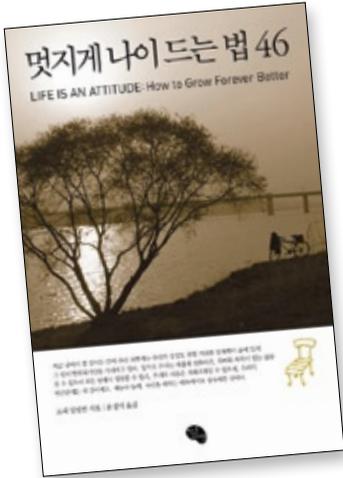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은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는 집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이다. 차오르는 바닷물 때문에 한 층 한 층, 집을 쌓아 올린 할아버지. 한때 할머니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나 이제는 혼자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외로운 날들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속에 빠트린 연장을 찾기 위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며 소중한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게 된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의 집, 즐거운 축제가 있었던 집, 만 딸을 시집 보냈던 집,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잃어버렸던 집,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아기가 태어났던 집..... 뛰어난 영상미와 담담한 문체로 펼쳐지는 한 편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이 책은 우리를 또한 잊고 지내던 소중한 추억들과 마주하게 만든다.



함소아 내 아이 주치의

저자 최혁용, 이상용 | 출판사 살림 LIFE

『함소아 내 아이 주치의』는 한의사 최혁용, 이상용이 저술했다. 149개의 아이 질병에 관한 양한방 정보를 가득 담았다. 엄마들이 0~5세 아이를 키우며 생길 수 있는 온갖 궁금증과 트러블을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고루 반영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이가 울고 보챌 때 아픈 곳을 바로 체크하고 엄마가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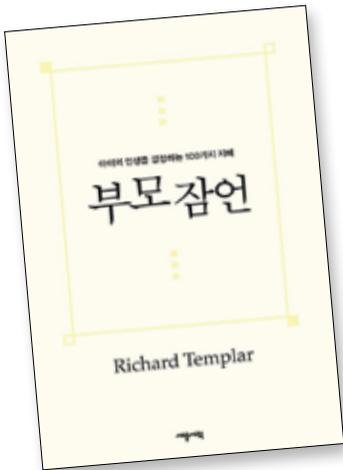


멋지게 나이드는 법 46

저자 도티 빌링턴 | 역자 윤경미 | 출판사 작은씨앗

평생 젊을 수는 없지만, 멋지게 나이들 수는 있다!

인간은 누구나 젊고 건강하길 원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그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이에 저자 도티 빌링턴은 '나이가 드는 것'이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들은 중년의 나이에도 대단히 활력적이며 늘 성장하는 사람들로서 삶의 도전과 문제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 마인드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책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성장 비결을 46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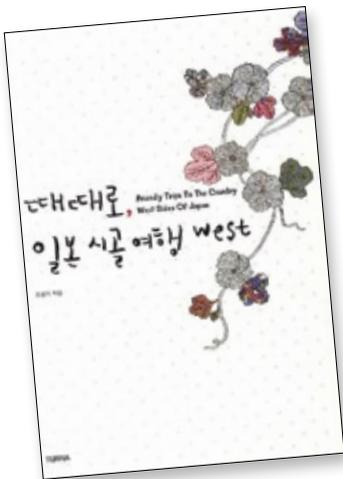


부모잡언 -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100가지 지혜

저자 리처드 템플러 | 역자 이문희 | 출판사 세종서적

세계적인 현자, 리처드 템플러가 전하는 '내 아이를 올곧게 이끄는 법'

현명한 부모와 지혜로운 자녀를 위한 인생 레시피 『부모잡언』. 세계적인 명사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리처드 템플러가 자신의 경험과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며 맞이했던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진정한 교육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역할을 현명하게 수행해 갈 수 있는 아이의 가장 위대한 멘토는 바로 부모인 '당신'이라고 조언한다.



때때로 일본 시골 여행 WEST

저자 조경자 | 출판사 TERRA

무라카미 하루키와 안도 타다오를 홀리다

Friendly Trips To The Country West Sides Of Japan 『때때로, 일본 시골 여행 West』. <때때로, 교토>에서 교토의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던 저자가 이번에는 일본 시골의 순박한 매력을 책 속에 담아 보여준다. 모래 언덕이 있는 돗토리, 특산물로 하루 종일 배를 두드리고 다녔던 히로시마, 나즈메 소세키를 단골로 잡았으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도 등장한 온정 넘치는 온천 마을 에히메 등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일본 여행의 로망지를 모두 담아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일본의 풍광을 생생하게 살려낸 사진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과장 없이 담아낸 글을 통해 일본 여행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또한 책에서 소개하는 여행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가격, 지도 등 여행지의 정보까지 풍부하게 담아 여행 가이드북으로 손색없이 활용할 수 있다.



친정 엄마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살아...”

세상 모든 엄마들이 아들 자식부터 챙길 때, 홀로 딸 예찬론을 펼친 우리 엄마. 마음은 고맙지만 바쁘게 일하는데 그냥 전화하고, 보고 싶다 찾아오고, 별 이유 없이 귀찮게 구는 엄마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도 결혼 5년 차에 딸까지 둔 초보 맘인데 엄마 눈에는 아직도 품 안의 자식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 하고 말았지만 이제 나도 그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거 같다.

“난 너 때문에 사는 다...?”

어린 시절부터 말도 잘하고 똑 부러지던 우리 딸, 지숙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미스코리아 뽑히는 외모까지 무식하고 촌스러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예쁜 새끼가 나왔을까 싶다. 혼자 서울 가서 대학 다니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태산이지만... 일해서 번 돈으로 용돈도 보내주고, 결혼한다고 남자도 데려오고, 벌써 애기 엄마까지 되었다. 품 안의 자식 같았던 우리 딸이 이제 내 품에서 떠나려나 보다.

34년 동안 미뤄왔던 그녀들의 생애 첫 2박 3일 데이트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날, 지숙은 연락도 없이 친정 집으로 내려와 미뤄왔던 효녀 노릇을 시작하고... 반갑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딸의 행동에 엄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는데...



아이언맨 2

아이언맨 VS 위플래시, 강력한 첫 대결

F-1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직접 경주용 차에 올라선 토니 스타크 앞에 나타난 위플래시! 무차별적으로 전기 채찍을 휘두르는 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던 토니 스타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새롭게 개발한 휴대용 슈트 Mark5를 이용하여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에게서 심상치 않은 위기를 직감한다. 한편,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토니 스타크의 라이벌이자 무기업자인 ‘저스틴 해머’는 아이언맨에 필적할 만한 위플래시의 위력을 간파하고 그를 몰래 감옥에서 탈출시켜 자신과 손 잡을 것을 제안한다.

아이언맨의 업그레이드에 한계는 없다!

위플래시를 만난 이후 좀처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토니 스타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던 위플래시가 저스틴 해머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고, 역대 슈트들을 뛰어넘는 최강의 위력을 지닌 Mark6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그 사이, 저스틴 해머는 새로운 군무기 발표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그 곳에서 위플래시는 모두를 놀라게 할 작전 실행에 나서는데...!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807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가구**

쥬지언 퍼니처	750 6109,766 0364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냐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	---------------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짚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동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리)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산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있는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형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서동(씨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타(골라빠가딩)	4585	4302
중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씨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Hits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씨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i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신메뉴

L.A 갈비 Rp. 125.000 (1인분 200g)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style,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Exhibition.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본
구
독
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Senayan · 723 0807
Tangerang · 558 7227
Kelapa Gading · 471 8047

굿 - 머니

MONEY CHANGER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능
- 토·일요일 서비스가능
- 배달 서비스가능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담당자직통 (021) 7000-9333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쁘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사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굿-머니 7000 9333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삼호(구농뿌뜨리)	8686	0624
한양(꺄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 **골프교실**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발리인터네셔널 라운지	759	368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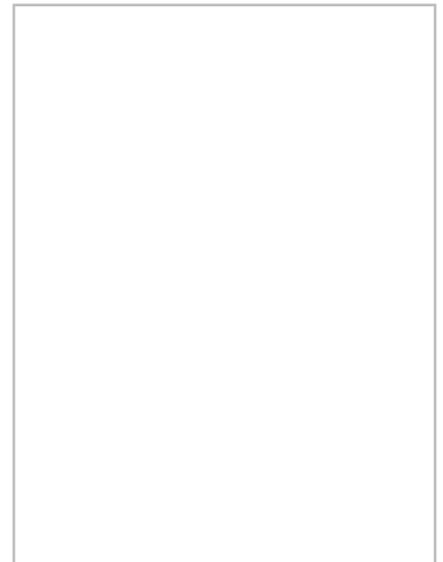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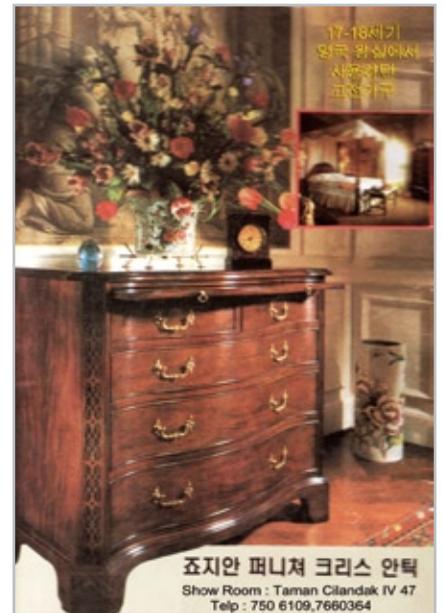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롱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반둥 (지역번호 022)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7081	9529
한국가든	203	347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aninnews123@gmail.com

공항만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 시스템 구축 시행

이민청은 국제공항만에 십지문 채취 및 안면사진촬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3.27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출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시스템이란?

- 출입국자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국 심사시 여권 스캔, 십지문 채취 및 안면 사진 촬영, 자동 출입국규제자 조회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존에 없던 십지문 채취 및 안면 사진 촬영에 따른 출입국심사 지연이 예상됨.

2. 적용대상

- 출국 및 입국하는 모든 자국민 및 외국인

단, 14세 미만 미성년자,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 외국인, KITAS 또는 KITAP 소지 외국인, BCM 시스템 등록 외국인(수시 출입국자는 최초 1회만 실시)

3. 시행일자

- ADI SOEMARMO 공항(SOLO 소재) : 2010. 03. 09

- ADI SUCIPTO 공항(JOGJAKARTA) : 2010. 03. 11

- SOEKARNO HATTA 공항 : 2010.03.27

※ 금년 중으로 27개 출입국공항만에 구축 예정

4. 따라서, 당분간 출입국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나, 동 시스템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안전 및 이익을 위하여 도입하고 있음을 감안, 교민 여러분께서는 출입국심사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 변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 핸드폰 : 0811-183-3164

E-mail : jkt_kimhoil@msn.com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대한항공 여름 성수기 운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름성수기, 여름방학 및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대한항공에서 다음과 같이 서울행 추가편을 운항계획입니다

변함 없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대한항공은 교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운항 시간표]

추가운항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KE626	화,금,토	2010.6.8	2010.8.31	자카르타	23:50	서울	08:45*1
	수,토,일	2010.9.10	2010.9.26		00:25		09:35*1
KE625	화,금,토	2010.6.8	2010.8.10	서울	17:30	자카르타	22:15
	화,금,토	2010.9.10	2010.9.25		18:00		23:00

기존운항편 : 스케줄 변동 없음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KE628	매일	2010.4.28	2010.10.30	자카르타	22:05	서울	07:05*1
KE627	매일	2010.4.28	2010.10.30	서울	15:45	자카르타	20:35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매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민 여론광장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정에, 회사에, 친구에게 ... 한인사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정과, 회사와, 친구와 ... 한인사회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평소 머리속을 맴돌며 궁금했던 질문들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인뉴스에서 '교민여론광장'의 문을 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한이뉴스 지면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실 곳 :

한인뉴스 편집부 이메일 : haninnews123@gmail.com

문의 : 김영민 편집위원(hp: 0818 916 566)

*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성함과 연락처(핸드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시는 분의 요청이 있을 시 익명으로 게재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없는 비방글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철저한 경비시스템

남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교통 및 입지 조건이 좋은 사무실



WISMA KORINDO 고속도로 진입 용이: 공항, 땅거랑, 보고르
임대문의 021) 797-1515 Jl. M.T. Haryono Kav.62 Jakarta Selatan

자연과 하나되는
건강한 생활이 시작 되는 곳!



임대형 180 m2 , 150 m2

도심속에 있는 자연 친화형 단지



APARTEMEN
**TAMAN
RAJA**

산책과 함께 체력을 단련 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농구장/수영장/휘트니스 센터



Taman Raja APARTEMEN
임대문의 021)794-2021

내 집 정원처럼 즐기는 녹지 공간 / 방음, 방열 창문유리 / 인터넷 사용 무료 / 식모방 별도 출입구
Jl. Warung Jati Barat I, No83. Kalibata Pancoran, Jakarta Selatan